

‘유통 빅3’ 롯데·신세계·현대 14조 투자 사상 최대

롯데 7.5조 작년보다 30% 늘어… 신세계 3.3조, 50% ↑
현대도 3조원대 전망… 통큰 투자로 불경기 정면돌파

국내 유통업계 ‘빅3’인 롯데·신세계·현대에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쏟아붓는 돈만 1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을 정면 돌파하고,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유통기업에 맞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오너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롯데그룹은 올해 7조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투자액 5조7000억원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1월 3조35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그룹 전체 투자 규모가 2조24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50%(1조1100억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두 그룹의 공격적 투자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오너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최근 정책본부 주요 임원회의에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 정용진 부회장 정지선 회장

롯데는 유통부문에만 투자액의 절반 수준인 3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아웃렛과 마트 등 신규점 오픈과 함께 옴니채널 구축에 투자를 집중한다. 옴니채널은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소비자가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유통기업에도 지지 않을 경쟁력을 갖추는 출발점이 옴니채널 구축이란 게 신 회장의 판단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비전 2023’ 실현을 위해 올해 고삐를 더욱 조일 계획이다. ‘비전 2023’은 2023년까지 매출 88조원, 투자 31조4000억원, 고용 17만명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유통 3사 2015년 투자 계획 현황	
	투자금액 주요 투자처
롯데그룹	7조5000억
신세계그룹	3조3500억
현대백화점그룹	3조(추정)

이를 위해 올해 경기 하남, 고양 삼송, 인천 청라 등에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교외형 복합쇼핑몰과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 투자를 집중한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증축, 이마트 신규 점포 및 온라인 물류센터, 모바일 사업에도 투자한다. 이마트는 2020년까지 모두 6개의 온라인 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 부회장은 온라인 물류센터가 국내 진출이 임박한 거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맞서기 위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면세사업과 아웃렛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면세사업 진출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시내 면



콘돔 이어 잼

두산家 4세의 두번째 사회적기업 실험

박 부사장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마음은 병 디자인에도 담겼다. ‘이런잼병’에는 ‘다람쥐도 욕심 낸 꿀밤으로 만든 잼’ ‘참새가 짙했던 꿀배로 만든 잼’을 주제로 한 삽화가 그려져 있다.

오리콤은 ‘이런잼병’을 4년째 후원하는 웅달샘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원 3~4곳에 전달할 계획이다.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익금 전액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돌려준다.

박 부사장은 지난해 6월에는 미혼모 방지를 위한 콘돔 ‘바른생각’을 내놔다. ‘바른생각’의 수익금 전액도 사회공헌 활동에 쓰이고 있다. 판매를 담당하는 빅엔트 인터내셔널은 아동보육시설과 정기 후원협약을 맺었으며 수익금 일부로 청소년용 성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현재 ‘바른생각’은 국내 콘돔 시장에서 4~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박 부사장의 사회적기업 실험은 상생 측면에서도 주목받는다. ‘이런잼병’은 100% 천연재료로 잼을 만드는 ‘인식존’과 함께한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국제화 외치는 거래소 영문홈피 ‘오타’ 투성이

“읽어민 이해 못할 부분 많아”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동시에 “자본시장 국제화”를 외쳤던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정작 영문 홈페이지에는 적지 않은 오타(誤打)와 문장 오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외국계 증권사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를 소개하는 영문 홈페이지(eng.krx.co.kr)에 첩대별로 적지 않은 오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영문으로 작성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페이지별로 여러 개의 영문 오타가 존재한다”며 “철자 오류는 물론 문맥과 문장 역시 영어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영문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짧은 시간에도 여러 개의 오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지수와 채권, 파생상품 등을 소개하는 총 9개의 대분류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역사와



한국거래소를 소개하는 영문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각 페이지별로 철자 오류가 쉽게 발견됐다. 사진은 Establishment(기관)를 Establishment로 잘못 표기한 사례.

업무, 주요 임원을 소개하는 ‘KRX 소개 (About KRX)’ 한 곳만 해도 영문 철자 오류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주요 내용을 담은 본문은 물론 굵은 서체로 표현된 제목에도 잘못된 철자와 영문 표현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단순한 철자 오류보다 문맥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며 “공공기관 해제와 동시에 가장 먼저 ‘국제화’ 의지를 밝힌 만큼 거래소 위상에 어울리는 홈페이지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전달하는 특성을 지녔고, 이것은 영문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라며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반가운 ‘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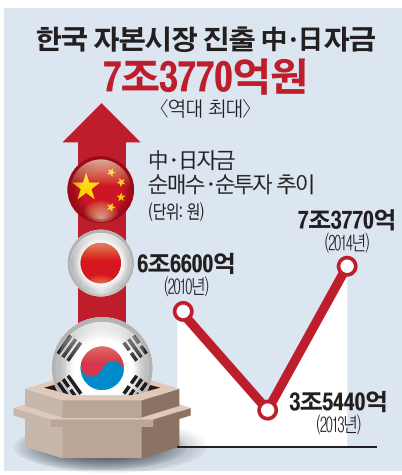


최근 겨울 가뭄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데이터 뉴스 Data News

中·日자금, 자본시장 유입 역대 최대

지난해 한국 자본시장에 중국과 일본 자금이 7조원 이상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이은 부(富)와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자금이 한국의 금융·실물시장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증권·채권시장에서 순매수·순투자된 중국과 일본 자금이 7조37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의 3조544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김준형 기자 junior@



올들어 사상 최고가 경신	
45종목 (코스피)	115종목 (코스닥)
올들어 사상 최고가 경신 주요 종목	
유가증권시장	제일모직 17만1000원(1월 29일)
· 이모레퍼시픽 289만1천원(2월 9일)	
(시총순서)	· 삼성화재 31만7500원(1월 29일)
코스닥시장	· 동서 2만7000원(2월 11일)
· 메디톡스 40만4900원(2월 6일)	
(시총순서)	· 이오테크닉스 14만1천원(2월 11일)

올들어 코스닥 115종목 사상 최고가

16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1월 2일~2월 11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별 사상 최고가(증가기준) 경신 현황 조사 결과 유가증권시장은 45종목, 코스닥시장은 115종목 등 총 160종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의 지수상승률은 1.57%, 코스닥 지수상승률은 10.76%로 각각 조사돼 코스닥의 지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코스닥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 수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황윤주 기자 hyj@



Biz

월요섹션 17~21면

커버스토리 설레는 봄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금감원 진웅섭號 ‘학벌타파’ 인사



금융감독원 임원 현황

직책	이름(나이)	출신고	출신대학	직책	이름(나이)	출신고	출신대학
부원장보(업무총괄)	김영기(52)	인동상고	영남대	부원장보(은행·비은행 검사)	이상구(53)	서령고/충남대	한국외대
부원장보(보험)	권순찬(56)	김천고	성균관대	부원장보(공시 조사)	조두영(54)	배문고	연세대
부원장보(은행·비은행 감독)	양현근(55)	광주상고	조선대	부원장보(회계)	박희준(54)	대전고	연세대

SKY 대신 商高 출신 ‘능력위주’

금융감독원이 신임 부원장보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진웅섭 원장 취임 3개월 만에 임원 인사가 마무리됐다. 앞서 부원장 인사에 이어 부원장보 인사에서도 출신·학연·지연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능력과 평판을 두루 갖춘 인물을 중용한 점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설 연휴 직후 국장급 이하 후속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부원장보 6명 임명…‘비(非)SKY’ 출신 약진 = 금감원은 부원장보 5명과 전문 심의위원 1명 등 부원장보 6명을 새로 임명했다.

부원장보 승진 대상자는 김영기 업무총괄 담당, 권순찬 보험 담당, 양현근 은행·비은행 감독 담당, 이상구 은행·비은행 검사 담당, 조두영 공시·조사 담당, 박희준 회계 담당 전문 심의위원이다. 이번 부원장보 인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학’ 출신보다 상업고등학교와 지방대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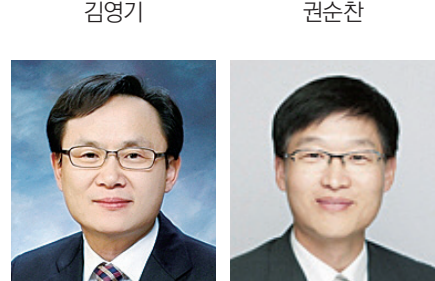
김영기 부원장보는 안동상고를 졸업한 후 영남대 경영학과를 거쳐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경북 김천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양현근 부원장보는 광주상고와 조선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에서 증권금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상구 부원장보는 서산서령고와 한국외대 경제학과, 캔자스주립대 경제학 석사과정을 거쳤다.

검사와 공인회계사 경력으로 금감원에 영입된 조두영 부원장보와 박희준 위원을 제외한 4명의 부원장보 가운데 2명이 상고 출신인 셈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학연·지연 등 비합리적 요소를 배제하고 업무능력·평판·도덕성을 두루 갖춘 인물을 임원으로

신임 부원장보 등 6명 인사 단행
김영기·양현근 상고·지방대 나와
진 원장도 상고에 검정고시 출신
임원 14명 중 SKY는 22% 불과



중용했다”며 “금감원이 솔선수범해 금융산업에 남아 있는 정실인사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부터 핵심 임원까지 비주류가 점령 = 진 원장은 지난해 말 부원장 인사에서도 지방대 및 상고 출신을 기용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로써 금감원장과 핵심 임원 대부분이 비주류로 채워졌다.

진 원장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건국대를 졸업했다. 역대 금감원장이 서울대 등 유명 대학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학력이다.

금감원 ‘2인자’인 서 수석부원장은 전남대를 졸업했다. 박세춘 부원장은 대전 중앙상고를 졸업한 후 바로 한국은행에 입사했으며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장은 입사 이후에 땀다. 이밖에 이동엽 부원장 역시 지방대인 충남대를 졸업했다.

이번 인사로 금감원 임원진 14명(감사 포함) 중 ‘SKY대학’ 출신은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과거 5년간의 비율(54%)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것이다.

학력뿐 아니라 지역도 다양해졌다. 진 원장이 나온 건국대 출신은 한 명도 없고, 출신 지역도 진 원장과 같은 서울은 조두영 부원장보 1명뿐이다. 다른 부원장보들은 광주와 대전, 경기도, 충남, 경북, 전남 등으로 출신 지역이 다양하다. 임원 절반이 1960년대 출생의 젊은 인사로 채워진 것도 관심을 끈다. 서 수석부원장이 1964년생으로 가장 젊고, 부원장보 7명 중 6명이 1960~63년생이다. 설 연휴 직후 이어질 국·실장(57석) 인사의 폭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처럼 금감원 임원에 학연·지연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능력과 평판을 두루 갖춘 인물이 중용된 것은 진 원장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지 기자 kimmj@

KB 윤종규號 ‘파격 용병술’

‘신한 잡기’ 위해 신한맨 영입
최영휘 前 CEO 사외이사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리딩뱅크 탈환을 위해 ‘적(敵)과의 동침’에 들어갔다. 경쟁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출신과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출신을 자사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또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료·교수 출신 사외이사 영입이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최초로 모든 주주의 제안을 받아 사외이사를 선정하는 ‘주주 제안제’를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 혁신을 추구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13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최영휘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비롯해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ADB)연구소 부소장, 김중회 전 KB금융 사장, 최윤열 서강대 경영대 교수, 한중수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 김유니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병남 LG인화원 원장 등 7명을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박재하 신한은행 이사회위원장 등 6명 후보

윤회장 ‘적과의 동침’ 리딩뱅크 탈환 각오

보수적 한국 기업문화서 유례없는 행보

금융권 최초 ‘주주 제안제’ 통해 선정 주목

◇윤 회장의 ‘절치부심’…신한 CEO 출신 사외이사 전격 영입 = 7명의 사외이사 후보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최영휘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박재하 ADB연구소 부소장이다. 이들은 과거 최대 경쟁사인 신한금융에 CEO와 이사회 의장으로 몸담았던 인물이다. 라이벌 업체의 핵심 임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건 한국 금융사에서 유례가 없는, 파격적 행보다. 그만큼 신한금융을 제치고 리딩뱅크를 탈환하려는 KB금융의 절박함이 묻어난다.

앞서 지난날 30일 경기도 소재 KB국민은행 일산연수원에서 진행된 ‘2015년 KB금융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한 금융회사는 경쟁사인 신한금융이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1982년 신한은행 출범 당시 합류한 신한은행의 창립 멤버다. 한국은행에 입사한 뒤 행정고시를 거쳐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진출했지만 신한은행 출범에 합류했다. 국제부장, 뉴욕지점장, 종합기획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03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올랐다.

박 부소장의 경우 금융권에서 화폐금융, 국제금융, 자본시장 전문 경제학자로 통한다. 지난 2007~2011년까지 신한은행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재일동포 주주를 비롯한 전략적 투자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 간의 연결고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에는 신한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맡았다.

KB금융 안팎으로는 최 전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을



KB금융 사외이사 6인 후보

최영휘(70)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김유니스(56) 이화여대 교수 (전 하나금융 부사장)	박재하(58)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 부소장 (신한은행 이사회위원장, 사외이사)
이병남(61) LG인화원 원장	최윤열(65) 서강대 교수 (우리금융 사외이사)	한중수(55) 이화여대 교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사외이사 영입 파격…금융권 최초 ‘주주 제안제’ 도입 = 이번 사외이사 후보 선임의 또 다른 백미는 모든 주주의 제안을 받아 사외이사를 선정하는 지배구조 혁신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김유니스 교수와 이병남 원장, 박 부소장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실시한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제안’ 제도에 따라 선정됐다. 앞서 KB금융은 지난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예비후보 제안을 부여해 같은 달 23일까지 주주 제안을 받았다. 향후 국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적용되는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김중회 현대카드 고문을 후보로 내정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라는 흠집을 남겼다. 그는 2003~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지낸 데 이어 지난 2008년 KB금융 사장에 올랐을 때 낙하산 논란에 휘말렸다. 다만 김 고문이 KB금융 사외이사 후보 내정 통보를 받기 전 현대중공업 사외이사에 먼저 내정됐다는 이유로 이번 사외이사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은 김 고문의 고사가 확정되면 오는 27일까지 추가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안철우 기자 acw@

광고심의필: 1287-1200

이웃과 복을 나누는
설 명절 되시고,



부족한 비타민C는
유한 비타민C 1000mg으로 꼭 채우세요!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즐거운 설날, 가족들과 풍성한 명절음식으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유한 비타민씨정 1000mg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세요!



■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 (신선자 요금부담) 【투약방법】있을 수 있으니 철부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 합니다.

정제 모양을 개선시켜 복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포장재료를 개선하여 빛과 습기로 부터의 보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효능·효과 과열병의 예방과 치료 |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 임신·수유기 및 병중 병후의 체력저하 | 육체피로, 잇몸출혈, 비출혈, 혈뇨 등의 모세관출혈

‘관피아 주홍글씨’ 찍힐라… ‘꽃보직’ 마다하고 ‘좌천성’ 선택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내용

시행일	3월 31일
취업제한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취업제한 범위	업무 관련성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 인허가 관련 공직유관단체 금지
대상	재산공개자, 공직유관단체 임원, 2급 이상 공무원 등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 공개

주요 부처 1급 이상 고위직 퇴임 관료들 어디로 갔나...

부처	이름	직함	퇴임 후 거취
국무조정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아주대 총장
	고영선	국무2차장	고용부 차관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사무총장
	류충열	경제조정실장	한국행정연구원 상근직 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신중돈	공보실장	미정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광교 세무법인 세무사
	현오석	장관	국립외교원 석좌교수
	추경호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제2차관	미래부 제1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교수
	이상목	제1차관	아주대 약학대 초빙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윤종록	제2차관	미정
	김재홍	제1차관	코트라 사장
국토교통부	한진현	제2차관	미정
	박기풍	제1차관	제주미래비전수립 용역 자문단 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	경희대 교수
	전만복	기획조정실장	가톨릭관동대 대외협력부총장
해양수산부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	울지대 의료경영학과 전임교수
	윤진숙	장관	미정
	손재학	차관	부경대 석좌교수
	문해남	해양정책실장	미정
	우예중	기획조정실장	미정
고용노동부	강준석	수산정책실장	미정
	방하남	장관	연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정현욱	차관	미정
	심경우	기획조정실장	미정
	노대래	위원장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학장(취임 예정)
	정종원	상임위원	미정
			한국산업연구원 객원연구원



개정 ‘공직자윤리법’ 3월 31일 시행… 지금 관가에선 무슨 일이

#국장 승진을 앞둔 경제부처의 A과장은 최근 꽃보직을 마다하고 대신 모두 기피하는 ‘좌천성’ 보직을 택했다. 부처 내에서 능력 있는 인재로 꼽히는 그의 선택에 주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하지만 A과장은 나를 생각해 있었다. 2년 후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고자 업무 관련성이 없는 보직을 선택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꽃보직을 말고 승진할수록 퇴직 시기가 빨라지게 되는 만큼 관피아 방지법을 피해 일찌감치 살길을 찾기 위한 교육자책이었던 셈이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으로 알려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 반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월 31일부터 발효되면 재취업 제한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취업제한 범위도 ‘소속 업무’에서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대상 민간기업 수도 4000여곳에서 1만3500여곳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직자들의 퇴임 후 재취업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적폐가 수술대에 오르면서 주요 부처의 1급 이상 퇴임 고위공무원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자리에서 물러난 장·차관을 비롯한 실장급 등 고위관료 30명을 대상으로 퇴임 후 거취를 조사해 보니, 관피아 논란을 피해 대략으로 거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 2년→3년

제한기업도 1만3500여곳으로 늘어

지난해 물러난 장·차관급 고위관료

관피아 논란 피해 대학行 또는 휴식

관료 출신 떠난 자리엔 정치인·교수

정피아 등 또다른 부작용 나올수도

나 거취를 정하지 않은 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수나 총장, 부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관료들은 조사대상 30명 중 10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이들도 9명으로 상당수였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부처의 산하 또는 유관기관으로 이동한 이들은 국무조정실 전 실장급 3명을 포함한 5명에 그쳤다. 때문에 관피아 난관을 뚫고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코트라 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퇴임 후 공직에 남아있는 경우는 더 적어 추

경호 국무조정실장 등 3명에 불과했다. 다음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고위 관료들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공직 유관단체, 매출 100억 원 이상의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사실상 ‘백수인’ 고위 전관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공무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능력 있는 관료들의 업무 노하우와 전문성이 사장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또 현직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승진을 기피하고 민간으로 이동하는 등 공직사회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기도 한다. 관피아 방지법이 수십년 답습돼 온 관피아와 낙하산 구태를 타파하고자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하 공공기관들도 관피아 방지법으로 전문성과 경험 없는 정치인이나 교수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까 노심조사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관피아 낙하산 논란에 적잖은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관피아가 떠난 자리엔 경영자로서 검증이 안된 ‘정피아(정치인+마피아)’나 ‘교피아(교수+마피아)’가 득세하게 되면 더 큰 잡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정 기자 puri21@

‘관피아 방지법’ 시행 전에...

“막차라도 타자” 짐 싸는 공무원들

‘미리 퇴직해서 재취업’ 움직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현직 관료들의 혼란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퇴직한 관료들은 외부의 눈치에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 더 세진 관피아법이 오기 전에 막차를 타자는 인식이 확산되며 일찌감치 짐을 싸는 공무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모 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예정보다 빨리 짐을 쌀 계획을 세웠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업제한 문턱이 더 높아질 게 뻔해 막차라도 타자는 마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공무원들은 “법으로 재취업이 차단되기 전에 퇴직해 재취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관피아법 시행 전이라 현직 시절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업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퇴직이 몇 달 안 남았거나 1년 넘게 남았더라도 차라리 관피아법 시행 전에 나가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예전 같으면 1급 실장이 내려가면 산하기관 자리에 최근 공모를 하면서 같은 부처 국장들과 경쟁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1급 실장이 공모에 떨어지고 2급 국장이 그 자리를 꿰차는 상황도 곳곳에서 발생하

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퇴직 공직자의 관련기관 재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이미 퇴직을 한 고위공무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취업을 할 경우, 대부분 교수로 강단에 서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7월 퇴임한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립외교원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조원동 경제수석 역시 중앙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KIST 경영과학부 교수로 복귀했다. 이영찬 복지부 전 차관은 모교인 경희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 복지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전만복 전 실장은 현재 관동대 부총장으로, 같은 부서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맡았던 박용현 전 실장은 을지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전문성을 떠난 관료들이 과거와 달리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부처의 인사적체 현상 역시 심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부처들 산하기관 고위직 자리에 교수나 정치인들이 자리하는 모양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등 인사시스템이 까다로워지면서 인사 작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청와대의 관피아 개혁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고 산하기관장으로 가는 길이 실질적으로 차단돼 업무 차질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취업 무조건 막기보다 잘못된 행위 바로잡아야”

“현업직서 경력 쌓아 승진” 의견도

전문가들은 전·현직 공직자 간 유착관계 단절을 위해 무조건적인 취업 제한보다 행위 제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공익을 희생한 사의 추구 행위를 틀림없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이 공익보다 민간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취업 제한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행위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디 어디는 못가만 얘기하지, 이런 건 하면 안 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순히 취업 제한을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책임과 권한을 주고 행위 규제를 강화하면, 즉 직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면 민관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업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방법을 제안했

관피아 방지법 논란 속 전문가 해법

이창원 한성대 교수	사전 취업제한 방식으로 한계, 행위 제한 도입
전성인 홍익대 교수	현업에서 경력을 쌓아 승진하는 것이 바람직
빈기범 명지대 교수	주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인프라 구축

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피아(가재부+마피아)의 경우 CEO 등 임원이나 감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현업직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것은 찬성”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금융지주사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근무이력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하는 것이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관피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민간기업의 경우 주주들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기업의 경우 (관피아에 대해) 주주들이 판단하면 된다”면서 “관피아의 근본적인 해법은 주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과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전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이번엔

‘특판채권’이다.

대신증권 특판 채권

시장금리 사상최저 시대

한국은행이 지급보증하는 동안채권을 특별판매합니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드리는 대신증권 특판 채권으로 옮기세요.

대신이니까, 크게 드립니다.

조건별 한도

구분	자산일고 고객	신규 고객
개인한도	최대 8억원	최대 5억원
조건	타사 ELS, 연금저축, 펀드, 채권 일고 시	체크카드 발급 및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 (1년이상)
비고	자산일고 금액을 한신하여 일고금액 만큼 우대한다 부여 (단, 펀드 단독은 불인정)	당사 신규고객의 계좌개설과 우대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동안채(통화안정채권)란?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채권

*우대혜택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퇴직연금, 방카슈랑스, 수시입출금상품(MMF, MMW, MMT, CMA/RP) 등은 제외됩니다. *자산일고 우대는 타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당사로 일고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펀드만으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펀드 이외에 기타자산 매수 또는 일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대조건, 우대한도, 가입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은 발행자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0912호(2015.02.11~2016.02.10)

싸늘해진 한·일...통화 스와프 ‘삐끗’

23일 만로 韓·日 통화스와프 연장 안될 듯
작년 對日수입 5년째 감소...수출도 ‘뚝’

원·위안화 통화스와프는 만기 3년 연장
FTA체결로 한중 경제의존도도 확대

“편중된 경제협력 자칫 실책 될 수도”

한·일, 한·중 간의 경제협력 온도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수출입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만큼 편중된 협력이 자칫 실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4일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를 인용, 이달 23일 만료하는 한·일 간 100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양측이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교도통신도 주중에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측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화 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도록 하는 호혜적 성격의 계약이다.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로 시작해 2011년 700억 달러까지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2012년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130억 달러로 축소됐으며 양국은 2013년 30억 달러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이달 23일 만료 예정인 100억 달러만 남아 있다.

한중일 경제 관계 현황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외환보유액이 많아 일종의 보험 같은 통화 스와프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데다 일본의 엔저 정책, 위안부 문제 등이 엇갈리면서 14년간 유지해 온 한·일 통화 스와프는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엔 소재·부품 무역흑자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소재부품 산업의 대일(對日) 수입의존도도 2009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해 사상 최저치인 18.1%를 기록했다. 대일 수출 또한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6.9%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킨 중국과의 경제 밀월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중국이 맺고 있는 원·위안화 통화 스와프 계약 만기를 3년 연장했다. 통화 스와프 규모는 종전대로 중국 통화는 3600억 위안이고 원화는 64조원이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액 또한 39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9.7% 늘었다. 이는 200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 총투자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3.3%로 2013년 2.6%보다 커졌다.

또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1~2013년 사이 금융 및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액(연결기준) 상위 200대 기업 중 해외



실적을 공시한 회사 38곳의 중국 매출은 총 145조1500억 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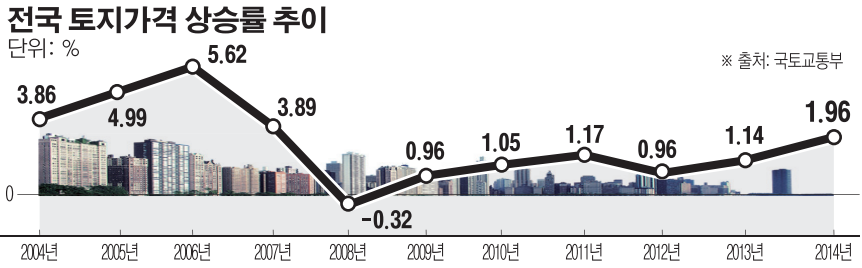
이들 기업의 중국 매출은 2011년 108조원에서 2012년 130조9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다시 145조원으로 늘었다. 2년 만에 34.6%(37조2800억원)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중국 매출을 제외하면 이들 대기업의 최근 2년간 매출 증가율은 17.1%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대중(對中) 의존도도 그만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한·중·일 간의 경제관계가 편중되면서 위험도도 그만큼 확대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중 FTA로 한·중 간 경제의존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국내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엔저 등의 여파가 우리 수출입 경제에 직결되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일본과의 경제관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FTA와 같이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는 다자간 경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주요한 협상 파트너인 일본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부동산활성화·저금리...땅값 기지개

작년 토지가격 상승률·거래량 금융위기후 최고
(1.96%) <17.9%

순수토지 거래량도 11%↑

땅값이 기지개를 켜 것일까. 지난해 토지의 가격상승률과 거래량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건축물이 없는 순수토지 거래량이 1년 새 11%나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이 땅으로 서서히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가격 상승률은 1.96%로 2007년(3.89%) 이후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작년 전국 토지거래량은 264만3622필지로 전년 대비 17.9%나 늘었다. 2006년(264만3264필지) 이후 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종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주택거래가 크게 늘어 토지가격이 오르는 데 영향을 미쳤고, 사상 최저 금리이다 보니 다

른 투자자가 마땅치 않자 사람들이 땅에 관심을 키우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토지 가격과 거래량이 완전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회복세를 보이며 땅값이 기지개를 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체 토지거래의 57%를 차지하는 주거지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22.7%나 늘어 토지거래 증가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건축물 부지를 제외한 순수토지의 전국 거래량도 약 100만 필지로 전년 대비 11% 급증해 눈에 띈다. 지역별 토지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난해 1위는 세종시(4.53%)다. 행복도시 이주가 본격화되고 인근 지역 주민의 토지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은 제주(3.73%), 대구(3.15%), 서울(2.66%) 순이었다.

이 연구원은 “세종시는 토지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지만 최근 몇 달 전부터 월간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이었고 제주도는 관광과 중국인 수요가 높아 오르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진영 기자 mint@

도시가스 요금 지각 인하

내달부터 10.1% ↓...2002년 이어 역대 두번째

정부가 유가하락분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10% 내리기로 했다. 1970년 도시가스가 공급된 이래 역대 최대 폭의 가격 인하로, 가계당 연간 7만 5000원가량의 연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0.1%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난해 11~12월 사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낮아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가격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다. 원료비 연동제는 두 달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넘으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연동제에 따라 지난 1월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5.9%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인하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요금 인하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인하율 기준으로는 12.9%를 내린 2002

년 1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준이다.

다음 달 요금인하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01만 가구의 연간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67만6000원에서 올해 60만1000원으로 낮아져 가구당 연간 약 7만 5000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소비자물가 0.18%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23%포인트 떨어뜨려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도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난방 성수기인 겨울철이 다 지난 3월부터 요금을 대폭 내리는 것이라 도시가스로 겨울을 난 가정들의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가계의 연료비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올 겨울 사용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민정 기자 puri21@

칭찬합시다 주호영 의원이 추천한 안규백 의원

“軍출신보다 더 군인같은 국방전문가

한학에 능통...합리적 성품에 정치 감각도 탁월”

“은화하고 합리적 성품에 탁월한 정치적 감이 있어 재선이지만 마치 중진 같은 포스가 느껴진다. 야당에 안규백 의원 같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들 정도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인 안규백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평가다.

안 의원과 그를 이렇듯 ‘극찬’하는 주 의원은 지난해 말 주 의원의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대표대행을 그만두기 전까지 각당 원내 지도부로서 정국 현안을 논의했던 사이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는 국회 국방위에 함께 몸담고 있다.

특히 주 의원은 안 의원의 국방위 활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주 의원은 “군 출신보다 더 군인 같은 국방 전문가로, 장기 국방계획에 대한 상세 수칙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뛰어나다”면서 “무조건 비판만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방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칭찬했다. ‘안전지킴이’

를 자임, 18대 국회 입성 직후부터 7년 동안 국방위에서 ‘한우물’을 파 온 안 의원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높이 산 것이다.

주 의원은 또 “안 의원은 한학(漢學)에 밝고 고서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도 했다. 안 의원 측근은 “부친인 안기남 초대 전북도의회에서 어렸을 적부터 한문 교육을 받고 자란 안 의원은 지금도 ‘논어’ ‘손자병법’을 즐겨 읽고 젊은이들에게 추천한다”고 전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이완구 ‘운명의 날’...정국 기로

새누리 “인준안 본회의 강행”

野 “단독 처리 땀 국회 울스톱”

여론조사서 51.9% “임명 반대”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표결 강행을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표결 강행 시 국회 일정을 ‘울스톱’하겠다고 밝혀 파행을 예고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본회의의 표결을 연기하기로 여야 간 합의한 이후 “여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16일에는 반드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해 인준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의 불출석을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표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야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여당

의 고민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그렇게(단독처리) 한다면 국회 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회 일정이 스톱(중단)된다고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야당이 불참하기로 결정할 경우 표결은 수월해지겠지만 이후 정국은 얼어붙을 전망이다. 더구나 ‘반쪽 총리’라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렵다. 반대로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투표를 결정할 경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함께 이 같은 돌출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부지런히 설득에 나서고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이완구 총리 후보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51.9%로 ‘찬성한다’는 의견(38.7%)보다 13.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필호 기자 beettlebun@

개각·청와대 개편 이르면 내일 발표

새 비서실장 ‘깜짝’ 인사 나올 수도

인준안 지연·불발 땀 설 이후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면 청와대도 개각과 청와대 인사개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인준되면 인사제정을 받아 개각을 단행키로 한 만큼,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발될 경우 인사를 설 연휴 이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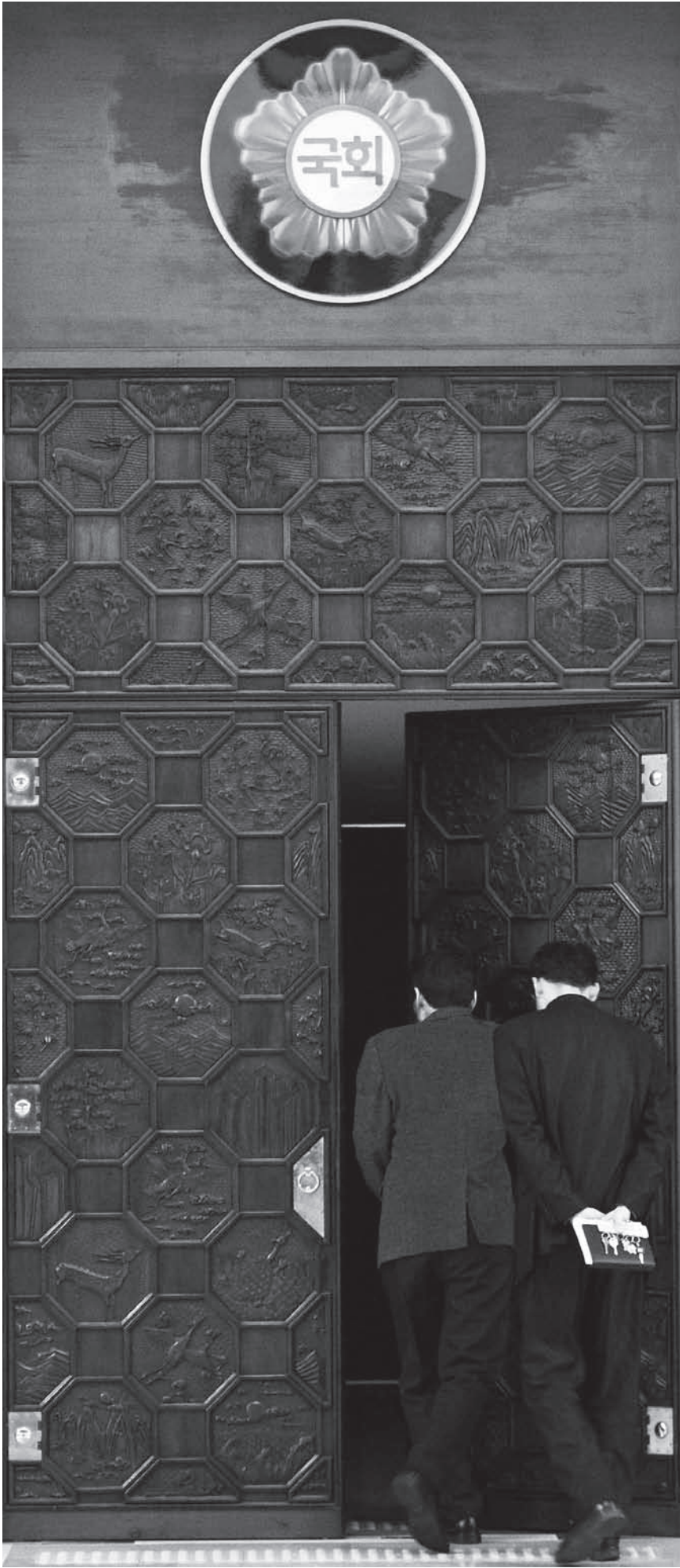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또다시 ‘깜짝 인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의 경우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에 시달려 핵심인사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심을 반전할 카드가 필요하다는 게 여론의 판단

이다. ‘깜짝 인사’ 카드로 파괴력이 가장 큰 건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다. 현재 유력 후보군에는 권영세 주중대사와 이명재 대통령 민정특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병호 언론재단 이사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최근에는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인물도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월 기자회견에서 제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외무부 장관을 지낸 한승주 전 주미대사다. 이 의원의 불출마는 진즉부터 예상돼 있었지만, 회견 시기가 미묘하다. 한 전 대사는 비서실장직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부정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교체가 확정된 권영세 주중대사 후임으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하고 중국 정부의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부임하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군 출신 주중대사는 처음이다.

김희준 기자 zerg@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각돌이 예상된다.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으로 국회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호남고속철, 4월개통 앞두고 또 ‘덜킹’

지반 침하 217곳·보수 곤란 18곳… 안전성 논란
노선변경 논란까지 겹치며 정상운행 차질 우려

말 많고 탈 많았던 호남고속철도가 4월 개통을 앞두고 이번엔 안전성 논란에 빠졌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실시 중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18.23km) 신설 구간에 연약지반이 다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야지대를 통과함으로 인해 총 217곳의 연약지반이 존재해 보수·보강 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총 사업연장 182.3km 중 지반침하 구간이 29.119km로 약 1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17곳 중 199곳은 낮아지는 현상이 작고, 중곡선(곡선반경 R=2만5000) 보정이 가능해 체결구(데일패드, 강철 조정판 등)를 사용해 보수 중이다.

그리고 18곳은 분지형으로 상대적으로 크거나 중곡선 보정으로 보수가 곤란한 곳으로 노반층 그라우팅공법으로 보수되고 있다.

대립산업이 시공한 광주시 차량기지

177km 040~240구간은 5.6cm로 침하가 가장 심했고, 쌍용건설이 시공한 전북 익산시 70km 630~845구간이 4.1cm,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김제시 109km 755~945구간이 3.8cm, 롯데건설이 시공한 충남 공주시 44km 300~357구간이 3.6cm 침하됐다.

217곳 중 콘크리트 궤도에서 허용잔류 침하량이 3cm를 넘는 곳은 총 23곳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속철도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작은 오차가 대형 사고로 발생할 수 있어 확실한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다”며 “실례로 중국은 2011년에 난징 남역 역사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측은 흙의 특성상 지반이 안정화될 때까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해명하지만 지반 안정화 이후 콘크리트 궤도 작업을 해야 했다”며 “승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확실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지반침하 문제뿐 아니라 전력공급, 신호장비 등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개통



전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토공노반에서 불가피하게 자연침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연침하 현상에 대해 사전에 각종 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허용하는 침하량 3cm를 초과하는 22개소 3.9km는 보강을 완료했고 보강 중인 52개소는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시속 300km로 영업 시운전을 1일 34회, 6200km를 운행 중이지만 궤도검측차 측정 결과, 열차 운행에 지장 요인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가 애초 3월 개통

에서 한 달가량 미뤄진데다 서대전 경우 여부를 둘러싸고 기존 노선 계획이 개통한 달을 앞두고 크게 변경되면서 안전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침하가 3cm를 넘길 경우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데다 연약 지반이 많은 호남고속철도의 특성상 침하 현상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고속철도는 4월 개통을 하더라도 연약지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 수요가 늘면서 자칫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아무도 찾지않은 ‘조현아 2억 공탁’ 박 사무장·女 승무원 상대 1억씩 “형량 과다” 판결 하루만에 항소

이른바 ‘땅콩화환’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선고 전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장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를 상대

로 각각 1억원씩을 공탁했다.

이미 1심 선고가 났지만, 법원에 맡긴 돈을 피해자가 찾아가면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박 사무장과 김씨가 돈을 찾아가면 2심에서 감형 요인이 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구속된 상황에서 찾아가 사과하지 못해 최소한의 성의를

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공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 사무장 등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당초 공탁을 하는데 여론을 의식해 반대했으나, 변호인 측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고 다음날인 13일 항소한 것도 처음에는 조 전 부사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변호인단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국내 최초로 인정된 사례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뤄볼 만한 점이라고 적극 조언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좌영길 기자 jy97@

‘화마’와의 싸움에 ‘작통’ 방화복

소방관에 품질검사 조작제품 공급

품질검사 완료 표시가 조작된 소방관 특수방화복이 무더기로 전국 소방관서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일선 소방관서가 정부 조달로 구매한 방화복 중 일부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제품검사(인정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제보가 최근 조달청에 들어왔다.

방화복은 KFI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적합한 방화복은 합격표시 날인을 찍어 소방서에 공급된다.

그러나 합격표시 날인이 찍혀 소방관서에 납품된 방화복 중 상당수가 실제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제보에 따라 안전처와

조달청 등이 조달 수량과 KFI 인정검사 수량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검사 날인이 무단으로 사용된 방화복이 언제부터,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 수천 벌이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처는 착용중지 조치로 방화복이 일시 부족해질 수 있어 우선 190억원을 긴급 투입해 방화복 3만1119벌을 조기에 구매키로 했다. 안전처는 문제가 된 업체 2곳을 지난 6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조달청은 두 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좌영길 기자 jy97@

법원 “재산 손해 없다… 퍼블리시티권 인정 못해”

수지, ‘수지모자’ 소송서 패소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씨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호텔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또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좌영길 기자 jy97@

강남구청 ‘구름마을 자치회관’ 철거



서울 강남구청이 16일 개포동 구름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작업을 재개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6일 용역업체 직원 등 총 300여명을 동원해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법원이 잠정 철거 중단을 결정하면서 2시간여 만에 철거작업을 중단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가 지난 13일 구름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자치회관 철거를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하면서 철거를 재개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부서진 세탁기… ‘고의’냐 아니냐

‘고소공방’ 삼성·LG 법정행

조성진 사장 등 불구속기소

지난해 독일에서 삼성-LG간 논란을 일으켰던 ‘세탁기 파손사건’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과 조모(60) 세탁기연구소장, 전모(55) 전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이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고소를 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여 만이다.

삼성-LG 세탁기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툼 슈티글리츠’와 ‘자툼 유로 파센타’ 두 곳의 매장에 진열됐던 자사의 세탁기를 LG전자 임원이 파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세탁기를 파손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관련자 20여명을 조사하고 매장 폐쇄회로TV(CCTV)영상을 확인한 결과 조 사장이 무릎을 굽힌 채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강하게 누르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삼성전자 측이 증거물을 조작했다고 볼 만



진

한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LG전자는 출장 중 다른 회사의 세탁기를 테스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독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입장을 밝혔다.

좌영길 기자 jy97@

주머니 속 영수증, 환경호르몬 ‘범벅’

커피전문점 등 서비스 근로자 노출 위험 높아

영수증을 많이 만지는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서비스직 근로자들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BPA)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엘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고영림 교수 등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영수증 접촉 정도에 따른 BPA의 인체 노출 수준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BPA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의 필수 구성 성분이며 유아용 용기, 음료수·식품 용기 및 표면처리제, 의료 장비, 영수증 표면의 감열지 등 다양한 소비자 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화학물질 중 하나로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분류된다. 이 물질은 체내의 항상성 유지와 발달 과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대사를 간섭해 인체 내 암을 유발시키고 신경제장에, 호르몬 불균형, 내분비계장애, 면역계장애 및 심장혈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됐다.

인간에게 노출되는 주된 경로는 음식물을 통한 인체 내 축적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한 노출 등이다.

특히 연구팀이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31명을 대조군 3명과 비교한 결과 영수증에 자주 접촉수록 BPA 농도가 짙었다.

하루에 만지는 영수증의 개수가 5개 미만, 5~50개, 50~100개, 100개 이상인 대상자의 소변 중 BPA농도는 각각 0.22, 0.58, 1.22, 3.09ng/ml로 나타나 영수증 접촉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BPA에 노출됐다.

현재의 기술에 의해서도 BPA가 포함되지 않은 감열지 생산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30% 이상 비싸기 때문에 널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행히 장갑을 착용한 근로자는 BPA 노출을 줄일 수 있었다.

장갑을 착용한 근로자의 노출 농도는 0.62ng/ml로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1.07ng/ml에 비해 낮았다.

연구진은 “향후 영수증으로 인한 BPA의 직업적 노출 정도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돼야 하며, 다수의 근로자에게 BPA 노출을 증가시키는 영수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쓰레기 계란’을 식품원료로… 양계농협 조사

농협중앙회가 폐기해야 할 계란으로 식품원료를 만든 한국양계농협에 대해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 인문 보도와 관련해 해당 조합에 대해 일체의 자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며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해직, 고발 등 엄중 문책을 계획이다. 또 업무 지원 제한(예산 및 보조, 표창 및 시상 등), 점포 설치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회는 전국 축협의 모든 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해 특별 비상 점검을 실시해 안전 먹거리 생산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정길 양계농협 조합장은 사과문을 통해 “소비자와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문제가 된 계란가공 공장은 향후 위생·환경 등 공장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감독기관의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한국양계농협의 계란가공공장은 계란 껍데기를 갈아 만든 액체형 찌꺼기 등을 정수적인 계란과 섞어 식품 원료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으며, 평택경찰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공장을 현장 조사하고 있다.

박엘리 기자 ellee@

부와 명예 지키려면... 이 말을 가슴에 새겨라

 발렌베리家 안드레 오스카 발렌베리 흑독한 시련 겪어라	 록펠러家 존 데이비슨 록펠러 남비와 사치는 죄악	 로스차일드家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단단한 화살뭉치처럼	 게이츠家 빌 게이츠 부의 대물림보다 자립
--	---	--	---

해군장교 복무, 후계자 필수코스 바다생활 통해 위기극복 능력 키워	전기 아끼고 음식 남기지 마라 어릴 적부터 근검·절약 가르쳐	‘형제 간 우애·가족경영’ 원칙으로 200년간 상속분쟁 없이 가문 지켜	대부분의 재산 자산단체에 기부 노력하는 자세·창의적 생각 강조
---	--------------------------------------	--	---------------------------------------

세계명문가에서 찾은 경영학

- <글 쓰는 순서>
1. 수백년 이어온 세계적 명문가들
 2. 발렌베리家, 아낌없이 도와라
 3. 로스차일드家, 나라가 최우선
 4. 록펠러家, 자선·문화사업으로 미국 명문가로
 5. 한국의 명문가 대표 기업① 삼성
 6. 한국의 명문가 대표 기업② 현대·LG
 7. 아름다운 세습... 부 그리고 명예
 8. 명문가에 남겨진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계 명문가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학자들은 존경받는 명문가의 비결로 하나같이 ‘교육’을 꼽는다. 가훈을 바탕으로 어린시절부터 시작된 가정교육이 명가를 탄생시키고, 집안을 세계 최고의 명문가 반열에 올릴 수 있었던 원천이라는 것. 지난 수백년 대(代)를 잇는 동안 세계적 명문가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멘토였다.

◇이건희 회장이 발렌베리 그룹을 방문한 이유 = 발렌베리는 2003년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이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을 방문하면서 국내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발렌베리는 5대째 가업을 이어오면서도 사회적으로 무한한 존경을 받으며 기업 경영을 해오고 있는 세계 명문가 중의 하나다. 재계에서는 상속과 후계 문제로 고민하던 이 회장이 발렌베리가 찾아 참고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1856년 발렌베리 전 회장의 증조부인 안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설립한 은행(현재 SEB은행)에 뿌리를 둔 발렌베리그룹은 금융에서 건설, 기계, 전자까지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더 유명한 것은 자녀들이 흑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자라도록 교육한다는 점이다. 해군장교 복무, 부모 도움 없는 명문대 졸업, 해외 유학, 국제적인 금융회사에서의 취업 경력, 폭넓은 인맥 네트워크 등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특히 후계자들 대부분 창업자인 안드레 발렌베리가 다녔던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복무하는 전통을 지켜왔다. 청소년 시절부터 험난한 바다 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위기에 대처하는 판단력과 위기관리 능력,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로 나가 외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한다는 안드레의 가르침도 후계자들을 바다로 나가게 하는 데 한몫을 했다.

◇10세에 금주·금연 서약서... 근검절약 강조한 록펠러 가문 = 33세에 석유왕으로 불리며 백만장자가 된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유행병처럼 번지던 사치를 극도로 혐오했다. 외아들이 록펠러 2세에게 매우 많지 않은 돈을 주고서 용돈 기입장을 쓰도록 철저하게 교육했고, 아들이 열 살이 되던 해에 술과 담배를 멀리하라는 서약서까지 받았다.

록펠러 2세 역시 어려서부터 절약정신을 그대로 실천했다. 그의 집안에서는 쓸데없이 실내에 불을 뿜히 켜놓는 법이 없었고, 음식 역시 남기지 않는 것이 철칙이었다. 록펠러 2세의 큰아들이 록펠러 3세는 전용 리무진 대신 집에서 30분 걸리는 출근길을 매일 걸어서 가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 비가 올 때에만 차를 이용했는데, 그것도 값비싼 택시 대신 버스였다. 해외 출장을 갈 때에도 핫도그 하나와 우유 한 잔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왕자의 난’ 없었던 로스차일드 가문 = 250년 넘게 금융업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로스차일드 가문은 창업자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의 유언에 따라 형제 간의 우애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있다. 마이어 암셀은 ‘화살 하나를 부러뜨리는 건 쉽지만 열두 개의 화살 뭉치를 부러뜨리는 건 쉽지 않다’는 교훈을 늘 강조했다.

이에 따라 로스차일드의 후손들은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서로 협

력하고 사랑하며, 아귀다툼을 하지 않는다. 공동출자 경영자, 이사장 등 가족은행의 중요한 직책은 모두 로스차일드 가문의 직계 남성이 담당한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외척과 그 후손은 공동출자 경영자가 될 수 없다 등의 규칙을 지켜왔다.

재산 세습 과정에서 형제간의 다툼이 생길 것을 미리 우려한 조치였다. 국내의 대기업 오너가 재산 상속 때에도 재산을 놓고 다투는 이른바 ‘왕자의 난’이 빚어지곤 한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를 미리 예견하고 재산 때문에 형제가 다투고 가문과 기업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심히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이어 암셀 창업자는 늘 형제간의 우애와 함께 가족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덕분에 로스차일드 가는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다.

◇21세기 명문가로 떠오른 빌 게이츠가 =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유명해진 빌 게이츠 가문은 앞서 언급된 발렌베리, 록펠러, 로스차일드 가문의 교육철학과 가훈을 종합한 새로운 명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빌 게이츠 2세는 어려운 가정 환경 탓에 스스로 학비를 벌며 대학을 다녔고, 대학 졸업 후 로스쿨까지 마치고 변호사로 활약하며 성공했다. 이미 40세에 백만장자로 변신했지만, 자신의 재산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다면 아들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의욕적으로 사업에 매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 3세 역시 집안의 가르침대로 낭비하지 않는 생활을 고수했다. 자가용 비행기 한 대 없고, 여행을 할 때도 1등석을 타지 않는다. 또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미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자기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에서 손을 뗀 뒤에도 상속세 폐지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부의 대물림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정신과 창의적인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국 명문가의 가훈



유한양행 창업주
故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

스스로 길을 개척하라

경주 최 부자

끓어죽는 이 없게 하라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유한양행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존경받는 명문가 기업으로 꼽힌다. 유한양행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는 생전에 “조직에 친척 있으면 회사 발전에 지장을 받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친척을 다 내보내야 한다”며 부사장을 지낸 아들, 조카를 회사에서 해고했다.

유 박사는 과거 정치자금 요구 압박에 굴하지 않아 흑독한 세무감찰의 표적이 되기도 했지만 국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귀한 돈이라며 세금을 원천대로 모두 납부해 세무감찰을 탈 없이 넘길 수 있었다. 당시 유한양행 세무조사를 맡은 감찰팀장은 “20일간 세무조사를 했지만 한국에 이런 업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벌어도 먼저 한 톨 안 나오더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유 박사가 남긴 여섯 장의 유언장 내용 일화도 유명하다. 유 박사는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내 소유 주식 14만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 원조에 쓰이길 원한다 등의 내용을 유언장에 담았다.

유한양행에 앞서 경주 최부자 가문도 아름다운 부의 세습과 사회 환원을 실천한 존경받는 가문으로 유명하다. 지금의 경주 교동에 터를 잡은 최부자 가문의 3대인 최국선은 ‘가문 주변에 끓어죽는 사람이 절대도 없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받들어 기근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위해 곳곳 문을 열었다. 흉년이 극심할 때에는 경상북도 인구의 10% 전후에 이르는 엄청난 백성들을 구제했다.

1910년 국가 주권이 일본 제국주의에 넘어갔을 때에는 후손 최준(12대)은 백신상회라는 곡물상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대며 독립운동을 돕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신생 국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길러야 한다며 모든 재산과 1만여권에 이르는 장서를 지금의 영남대학 전신인 대구대학교와 계림학숙 설립을 위해 기증하기도 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미약품



감기까지 생각한다면 케어가글

입속살균은 물론 편도염, 후두염, 인두염, 구내염까지
우리가족 입속건강과 감기예방을 위해~



제품문의 080-916-9000

강력한 입속세균 살균! 살균력이 강한 의약품으로 구취, 충치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감기예방까지 OK!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으로 감기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성분 100ml 중 벤제토늄염화물(KP10mg), 항기생태티스산 항생제 ●효능효과 구강염증 및 인두염구강염증 예방, 편도염, 인두염, 구강염, 발치(아를 뽑을수 있는 구강)수술 후의 소독, 살균 및 충치의 예방
●용법용량 용액 1일 2~3회, 1회 4~5ml(15ml 용 사용)에서 입안을 항균제에 침투시켜 살균하여 병을 예방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8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8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8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8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8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8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8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8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8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8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9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9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9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9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9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9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9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9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9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9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0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0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0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0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0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0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0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0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0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0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1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1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1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1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1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1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1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1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1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1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2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2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2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2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2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2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2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2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2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2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3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3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3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3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3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3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3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3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3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3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4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4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4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4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4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4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4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4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4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4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5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5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5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5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5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5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5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5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5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5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6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6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6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6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6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6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6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6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6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6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7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7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7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7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7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7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7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7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7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7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8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8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8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8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8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8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8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8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8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8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9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9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9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9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9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9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9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9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9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19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0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0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0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0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0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0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0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0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0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0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1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1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1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1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1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1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1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1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1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1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2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2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2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2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2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2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2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2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2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2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3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3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3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3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3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3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3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3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3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3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4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4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4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4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4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4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4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4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4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4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5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5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5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5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5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5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5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5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5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5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6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6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6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6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6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6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6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6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6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6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7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7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7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7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7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7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7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7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7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7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8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8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8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8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8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8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8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8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8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8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9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9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9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9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9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9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9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9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9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29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0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0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0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0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0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0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0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0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0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0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1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1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1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1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1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1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1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1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1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1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2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2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2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2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2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2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2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2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2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2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3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3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3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3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3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3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3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3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3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3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4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4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4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4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4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4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4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4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4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4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5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5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5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5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5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5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5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5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5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5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6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6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6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6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6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6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6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6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6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6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7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7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7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7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7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7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7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7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7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7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8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8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8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8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8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8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8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8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8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8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9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9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9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9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9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9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9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9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9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39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0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0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0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0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0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0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0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0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0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0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1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1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1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1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1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1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1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1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1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1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2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2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2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2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2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2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2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2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2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2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3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3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3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3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3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3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3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3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3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3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4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4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4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4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4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4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4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4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4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4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5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5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5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5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5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5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5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5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5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5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6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6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6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6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6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6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6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6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6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6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7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7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7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7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7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7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7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7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7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7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8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8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8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8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8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8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8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8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8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8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9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9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9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9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9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9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9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9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9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49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0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0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0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0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0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0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0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0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0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0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1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1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1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1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1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1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1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1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1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1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2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2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2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2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2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2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2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2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2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2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3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3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3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3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3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3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3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3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3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3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4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4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4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4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4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4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4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4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4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4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5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5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5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5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5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5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5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5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5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5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6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6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6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6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6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6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6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6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6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6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7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7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7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7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7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7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7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7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7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7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8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8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8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8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8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8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8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8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8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8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9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9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9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9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9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9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9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9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9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59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0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0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0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0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0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0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0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0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0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0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1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1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1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1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1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1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1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1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1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1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2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2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2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2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2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2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2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2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2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2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3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3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3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3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3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3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3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3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3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3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4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4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4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4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4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4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4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4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4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4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5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5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5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5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5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5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5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5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5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5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6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6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6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6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6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6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6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6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6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6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7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7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7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7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7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7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7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7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7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7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8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8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8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8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8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8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8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8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8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8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9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9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9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9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9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9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9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9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9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69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0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0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0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0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0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0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0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0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0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0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1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1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1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1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1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1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1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1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1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1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2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2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2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2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2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2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2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2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2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2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3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3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3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3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3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3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3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3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3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3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4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4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4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4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4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4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4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4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4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4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5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5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52.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53.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54.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55.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56.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57.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58.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59.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60.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한다 761.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발상의 전환!

증권사 최초 금융상품 연계 체크카드

able i max Card



**금융상품과 체크카드가 만났다
금융수익에 추가수익까지 쌓인다**

*상기 수치는 해당 상품 가입에 따른 카드사용액 최대 적립율입니다



*상품별 최소가입금액 미만 또는 금융상품 가입금액을 초과한 카드사용실적에 대해서는 연6%로 월단위 적립(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홈페이지 참고)

CMA형 CMA계좌의 수익률을 받고, 사용한 카드 실적에 따라 CMA 수익률을 또 돌려받는다 (최대 세전 연 5%, 당월 사용실적 30만원 이상시)

금융상품형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받고,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 캐쉬백을 또 돌려받는다

소득공제 30% 혜택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

최대 40% 현장할인

특급호텔, 유명 레스토랑 등
전국 50여개 제휴처 현장할인

수수료 무료 서비스

각종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
(전월실적 10만원 이상시 제공)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0346호(2015년 1월 19일~2016년 1월 18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한도 1일 600만원, 월 1,000만원(카드별 관리) *우대조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홈페이지 참고

현대증권

재계, 설 연휴 끝나고 릴레이 주총 돌입

대표이사 재선임·배당·실적 ‘최대 이슈’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내달 13일 시작으로 잇따라

임기 만료 CEO 재선임 상정

실적 부진따른 대표 책임론도

재계가 설 연휴 이후 릴레이 주총에 돌입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다음달 13일, 20일, 27일에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해 주주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한다.

특히 다음달 13일은 재계 순위 1, 2위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들을 비롯해 포스코, LG상사, LG생활건강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주총이 대거 몰린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꼽힌다.

2015년 주요 기업 주총 일정		주총 주요 안건	
일정	기업명	기업명	이슈
3월 13일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LG상사, LG생활건강 등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대표이사 재선임
		현대자동차	윤갑한 사장 재선임-한전 용지 고개 매입 따른 주주이익 감소
3월 20일	현대글로비스, LS산전, 만도, 농심, 네이버 등	포스코	실적 악화 책임론
		현대중공업	실적 악화 책임론
3월 24일	쌍용차 등	넥센타이어	사외이사 수 3명으로 확대
		엔씨소프트	넥슨의 전자투표제 도입 요청
3월 27일	LS, E1, 엔씨소프트 등		

올해 주총에서는 각 기업이 펼치고 있는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재선임, 실적 악화에 따른 책임론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자사주 매입, 배당금 확대 등 최근의 주주친화 기조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3년 임기가 다한 권오현 부회장의 대표이사 및 2명의 사외이사 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이 상정된다. 삼성전

자는 2015년 이사 보수한도를 지난해 보다 18.8% 줄여든 390억원으로 책정해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는 3년 단위로 분할 지급되는 장기성과보수가 18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현대차는 임기가 끝나는 윤갑한 사장의 재선임 안건이 상정된다. 일각에서는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고가 매입한데

따른 문제 제기 가능성도 나온다.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낸 대기업들은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 중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4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냈다. 재계는 그러나 최길선 회장, 권오갑 사장 등 작년 하반기 현대중공업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현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주주들이 큰 관심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화제가 된 엔씨소프트는 다음달 27일 주총을 연다. 넥슨은 최근 엔씨소프트에 보낸 주주제안서를 통해 추가 이사 선임안 사전 공유, 실질 주주명부 및 전자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효진 기자 js62@

LG전자, 세련미 더한 스마트워치 ‘어베인’ 공개



LG전자가 다음달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 2015에서 새로운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련된, 품위있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어베인은 LG전자의 새 스마트워치 라인업으로 전작 ‘LG G워치R’보다 크기와 두께를 대폭 줄였다. LG 워치 어베인은 1.2GHz 스냅드래곤 400 프로세서, 메탈 바디, 안드로이드 웨어 운영체제, 자체 개발한 ‘연속 심박 측정’ 기능이 탑재된다. 골드와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사진제공 LG전자

차기 무역협회장에

김인호·손병두 거론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차기 회장으로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새 무역협회 회장은 4~5명이 최종 후보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호 전 경제수석은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도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비서실 출신인 손병두 전 총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서강대 총장, KBS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손병두 전 총장은 2013년 8월부터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새 무역협회 회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산업 현안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장관 출신 다수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진식·이윤호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장관 출신으로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무역협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구자용 E1 회장도 하마평에 오르르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밴드’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밴드(BAND)가 전국 5만2000여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밴드(BAND)’서비스를 통해 부모와 교사들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

캠프모바일은 부모와 교사가 한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의 일상과 알람 내용 등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릴형 모바일 SNS 밴드(BAND)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밴드(BAND)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캠프모바일은 우선 검색 접근성을 높였다. 네이버와 유니버, 모바일 페이지에서 ‘어린이집 밴드’ 또는 ‘유치원 밴드’라고 검색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밴드(BAND)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개별적으로 초대받지 않아도 2015년 반 배정을 받은 이용자는 검색을 통해 바로 해당 밴드를 찾아볼 수 있어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밴드(BAND)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유니버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습한 동요, 동화 등을 찾아 밴드(BAND)를 통해 함께 즐길 수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개인고객 잡아라”… 아슬란 전략 바꿨다

〈현대차〉

지난달까지 개인판매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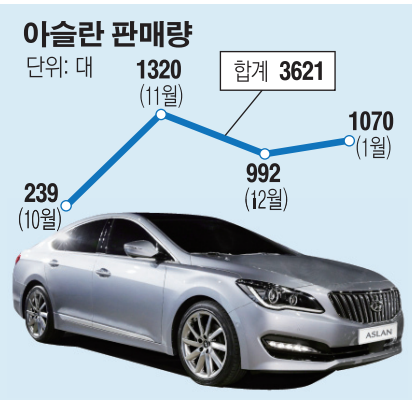
법인판매 우세 예상 빚나감

‘개인’ 타깃 다양한 마케팅

현대자동차가 아슬란의 판매 타깃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한다. 당초 예상과 달리 개인고객 판매량이 법인을 압도하면서 서둘러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아슬란은 모두 3621대가 판매됐다. 이 중 법인 판매 비율은 34%(약 1231대), 개인은 66%(약 2390대)를 각각 기록했다. 당초 기업을 임원용 차량 등 법인 판매가 우세할 것으로 봤던 회사 측의 예상보다 소 빚나감 셈이다.

현대차는 아슬란 출시와 동시에 법인 판



매 위주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법인 판매가 예상외로 저조, 지난해 총 2551대를 판매하는 등 목표 판매량 6000대에 못 미쳤다. 아슬란의 올해 목표 판매량이 2만2000대인 점을 고려하면 월평균 1833대를 팔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300

LG화학 ESS, 2차 전지 중주국 日 입성

히타치·도시바 등 제치고 선정

LG화학의 에너지저장장치(ESS)기술이 2차전지 중주국인 일본에서도 통했다.

LG화학은 일본 GPD사가 추진 중인 홋카이도 태양광 발전 연계 ESS 구축사업에 서 리튬이온 2차전지 공급업체로 선정됐

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엔 설치되는 ESS는 총 31MWh로, 해당 지역의 약 6000가구가 하루 동안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전기차로 환산하면 2000대 이상에 탑재될 수 있는 양이다.

LG화학은 2017년까지 일본 홋카이도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 4곳에 순차적으로

만원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1070대를 판매하는데 그치는 등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대차는 아슬란 판매 전략의 무게 중심을 개인고객 쪽으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한다. 이달 오픈이던 리더들을 겨냥한 아슬란 시승을 진행한다. 또 다음달에는 수입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비교 시승 행사를 마련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 파워블로거 대상의 시승 빈도를 더욱 높여 개인 판매를 극대화할 전략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슬란을 실제로 타본 고객들은 성능과 디자인에 만족해 불만이 거의 없다”며 “개인고객들의 아슬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실제 성능을 보여주 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LG화학은 홋카이도 전력 당국이 제시한 출력 변동폭 규제인 1%/min 물을 히타치, 도시바 등 일본 내 경쟁한 2차전지 업체를 제치고 최초로 통과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ESS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GPD와의 장기간 기술 협력을 통해 고효율 ESS 솔루션을 개발, 일본 최초로 이 기준을 통과하는데 성공했다”고 의미를 전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태생부터 세계 1위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40년史’

화성 부품연구동에 ‘사료실’ 열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40년의 역사를 한데 모은 ‘반도체 사료실’을 오픈했다. 이곳 사료실에는 사업 초기부터 지금의 삼성반도체가 있기까지 수많은 임직원의 땀과 노력, 도전의 역사를 간직한 6800여 점의 사료가 보관돼 있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DSR(부품연구동)에서 반도체사업 40년의 발자취와 추억이 깃든 자료를 한자리에 모은 ‘반도체 사료실’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

반도체 사료실은 반도체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조직 문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적이다.

사료실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태생부터의 모습이 담겨 있다. 1974년 이근희 회장은 사재를 털어 한국반도체 지분을 인수했다. 이때부터 반도체 사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도전이 시작됐다. 당시에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및 전자 손목시계용 IC와

같이 기본적인 부품만을 생산하던 시절이었다.

이후 1983년 삼성의 새로운 도전을 밝힌 동경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시작, 같은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64K D램 개발에 성공했다. 2013년 문화재청은 산업 역사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 64K D램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사료실에는 당시 64K D램 개발 기념으로 임직원들에게 증정한 동넨비도 함께 전시됐다.

또 1992년 세계 최초 64M D램 개발과 1993년 세계 메모리 시장 1위 석권, 2002년 세계 최초 300mm 웨이퍼 양산과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 제품 탄생, 낸드 플래시 메모리 세계 1위 달성 등 삼성전자 반도체 40년의 기록과 세계 1위 등 삼성전자 반도체의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역사도 전시됐다.

한편, 지난달 열린 반도체 사료실 오픈 행사에는 40년 삼성전자 반도체의 역사와 함께한 20여명의 임직원들이 초청돼 그 의미를 더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안랩 PC주변기기 출시 ‘곰지않은 시선’

스마트기기 멀티충전기 선풍

보안사업 부진 ‘교육지책’?

안랩의 지속적인 컴퓨터 주변기기 출시에 대한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백신을 포함한 보안사업이 과거 전성기 같지 않으며 해외 사업 부진까지 이어지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안랩은 지난 13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최대 5개의 스마트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USB 멀티충전기를 내놴다. 이 제품은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이며, 소셜커머스, 안랩몰 등에서도 판매가 예정돼 있다. 안랩은 이 제품 출시와 함께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안랩이 백신 외 다른 제품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는 언

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휴대용기기 보조 배터리인 ‘안랩팍’을 선보였으며, 지난해에도 휴대용 보조배터리 ‘마이비’를 출시했다. 이처럼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개발한 이유에 대해 안랩은 수요 증가를 들었지만, 이 기간동안 국내에서는 정작 새로운 백신 개발 소식은 없었다.

물론 해외 시장에서는 보안 제품을 내세운 움직임이 꾸준하다. 최근에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전용 보안솔루션인 ‘안랩 V3 모바일’의 최신버전(3.0)을 일본 시장에 선보였다.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탐지기능을 제공하는 이 제품은 현재 일본 구글플레이와 스마트폰 영업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에 대해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장 기능 개선엔 ‘프로바이오틱스’

일동제약 ‘하이락토’로 시장 공략

‘4중코팅’ 유산균 생존율 향상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동제약이 유산균 기술을 집약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하이락토’ 시리즈를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전년 대비 249.1% 급증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우리 몸속에 들어가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내는 살아있는 균으로 장내 균총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이락토는 자체 배양한 일동 락토바실러스 랍노시스·일동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일동 엔테로코카스페시움 등 양질의 유산균을 100억 CFU이상(일일섭취량 기준) 함유한 고품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하이락토 키즈’는 건강한 한국인의 장과 모유에서 추출·배양한 유산균과 비피더스균 등이 주성분이다.

또 ‘하이락토 프리미엄’은 기존 하이락토의 락토바실루스 균종에 비피도박테리움 4종을 추가, 균의 다양성과 밸런스를 고



일동제약 하이락토 시리즈.

려했다. 이와 함께 비타민D·아연 등을 함유해 기능성을 더욱 높였다.

특히 이들 제품은 ‘4중코팅’ 기술을 적용해 기존의 제품들이 중점을 뒀던 유산균의 생존율을 더욱 높인 것은 물론, 장에서의 증식률까지 고려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4중코팅 공법이란 일동제약이 국내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차세대 유산균 기술로, 유산균을 수용성폴리머·하일루로산·다공성입자·단백질의 순서로 코팅한 것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이 기술은 유산균을 위산·소화액 등 위장관 내의 다양한 환경요인으로부터 보호해 장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장에서 번식을 용이하게 하는게 특징”이라며 “현재 다양한 유산균 원료와 제품에 4중코팅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설 지나...‘전국 4만가구’ 설설 끊는다

**설 연휴 이후 공급되는 알짜 분양단지**

시/도	위치	사업명	총가구수	전용면적(㎡)	일반분양	분양시기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1236	59, 84	1057	3월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 3구역 센트라스#	2789	40~115	1171	3월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 6편한세상	1584	59~114	625	3월
	경기 용인시 기흥역세권	힐스테이트 기흥	976	72~95	976	3월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마산동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	662	58~84	662	3월
	광주시 태전4지구	광주 태전 아이파크	640	59~84	640	3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힐스테이트 기흥	976	72~95	976	3월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	662	58~84	662	3월
	대구 동구 신천3동	광주 태전 아이파크	640	59~84	640	3월
세종	보람동 3~2생활권	대평노블랜드(M3블록)	1002	59~84	1002	3월

**설 연휴 이후 공급되는 알짜 분양단지**

시/도	위치	사업명	총가구수	전용면적(㎡)	일반분양	분양시기
경남	양산시 양산물금지구	양산물금 EGthe1(12블록)	1083	59~84	1083	3월
경북	구미시 문성2지구	문성파크자이	1138	74~100	1138	2월
전북	군산시 미장지구	군산 미장2차 아이파크	540	74~101	540	3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 3차 EGthe1	1184	72	1184	3월
	공주시 신관동	공주 신관 해링턴플레이스	475	59~84	475	3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	충북 진천 아이유벨	498	84~127	498	3월
광주	북구 용봉동	한국아델리움	399	84	399	3월
강원	원주시 원주혁신도시	모아엘기아데윙퍼스트	418	84~123	418	2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동 그린앤골드	288	76, 84	288	2월

※ 상위 내용은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

설 연휴 이후 분양시장에는 알짜물량들이 대거 쏟아진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데다가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자격 요건이 완화 돼 청약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설사들도 시장이 좋을 때 분양하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알짜 분양들을 앞당겨 분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3월까지 45곳, 총 4만260가구 중 3만6819가구(국민임대, 장기전세 제외)가 일반에 분양된다.

수도권에서 26곳 중 2만6516가구 중 2만362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20곳 1만8416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양물량이 공급된다. 서울은 4곳에서 2982가구를, 인천은 2곳에서 2227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19곳 중 1만6402가구 중 1만3194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본격 이사시즌·청약제도 개편 3월까지 전국 45개 단지 큰장

현대ENG '기흥'GS '청라' 등 수도권 26곳서 2만6516가구

대방 '세종' 찍고 해동 '서귀포' 지방 알짜임지 꺾찬 물량 주목

주요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우선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세권 2블록에 '힐스테이트 기흥'을 3월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1층~지상49층, 5개동, 전용면적 72~84~95㎡, 총 976가구 규모다. 반도건설은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마

산동에 지하1층~지상12층, 11개동, 전용면적 58~84㎡, 총 662가구로 구성된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를 3월 공급하고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광주시 태전동 87번지 일원 태전4지구에 '광주 태전 아이파크'를 3월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25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40가구 규모다.

또한 GS건설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를 3월 공급한다. 지하1층~지상4층, 35개동, 전용면적 76~84㎡, 총 646가구 규모다.

3월에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훨씬 많은 물량이 대거 중이다. 반도건설이 대구 동구 신천3동 일대에 '인천 반도유보라'의 분양을 3월 시작한다. 이 단지는 지하3층~지상22층, 11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64가구 중 60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대방건설이 세종시 보람동 3~2생활권

M3블록에 '대방노블랜드'를 3월 공급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지구 A1-1BL에 '군산 미장2차 아이파크'를 3월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1~지상25층, 7개동, 전용면적 74~101㎡, 540가구 규모다. 단지는 미장초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진포중, 서흥중, 중앙여고, 군산고 등도 단지 반경 3km 이내에 인접해 있다. 단지 옆 경포천을 경계로 수송지구와 마주해 있어, 수송공원, 롯데마트 등 수송지구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동건설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D-3블록에 '해동 그린앤골드'를 2월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상1층~4층, 18개동, 전용면적 76㎡~84㎡, 총 288가구 규모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4개(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KIS, BHA, NLCS) 학교가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구성형 기자 carlove@

현대ENG, 우즈벡서 26.6억달러 가스처리시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3일 총 26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칸딤(Kandym)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우즈벡석유가스공사 쇼키르 파이줄라예프 회장, 우즈벡 경제부 갈리나 카리모프나 사이도바 장관, 이육현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 등 양국 정부 인사들과 현대엔지니어링, 루크오일-우즈벡(LUOC:Lukoil-Uzbekistan Operating Company)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계약식은 현지 국영방송이 직접 취재, 방영하는 등 국가적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칸딤 가스전서 年 81억㎥ 처리 설계·구매·시공 EPC 계약 박 대통령 중앙일보 순방 결실

'칸딤(Kandym)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는 총 사업 금액이 26억6000만 달러로 이 중 현대엔지니어링의 계약금액은 20억 1000만 달러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520km 떨어진 칸딤 가스전 지역에서 연산 약 81억㎥의 천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오는

2018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구매·시공(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을 일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경제외교 활동의 첫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순방 당시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본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주를 지원하면서 중단됐던 계약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성상록 현대엔지니어링 화공플랜트본



부장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20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공사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현대엔지니어링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계약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 수주 지원 활동이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성공적 사업 수행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성형 기자 carlove@

귀한몫 전세 ‘부르는게 값’

월세전환·재계약 등 매물난에 서울 0.26% 등 4주째 상승 매매가도 덩달아 0.07% 올라

월세 전환과 재계약 등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한 가운데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더해져 전세는 그야말로 '귀한 몸'이다. 때문에 집주인이 내놓은 호가가 전셋값이 되면서 바로 거래되고 전세시장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전세시장은 서울 0.26%, 경기·인천 0.13%의 변동률을 나타내며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신도시는 0.06% 상승했다.

치솟는 전셋값에 매매시장도 덩달아 오름세다.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와 전세입자의 매매전환 수요가 더해진 영향으로 서울은 매매가격이 0.07% 올랐다. 경기·인천은 0.05%, 신도시는 0.03% 상승했다.

우선 서울은 △강동(0.20%) △서초(0.20%) △노원(0.16%) △강서(0.13%) △종로(0.09%) △강남(0.06%) △광진(0.05%) △동작(0.05%) △송파(0.05%) △양천(0.05%) 순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둔촌주공2·3·단지, 상일동 고덕주공3·5 단지가 이번 주 250만원~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재건축 사업진척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가격에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신도시는 전세물건을 구하지 못한 세입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모습. 연합뉴스

자들이 매매 거래에 나서면서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일산(0.07%) △산본(0.05%) △충동(0.05%) △광교(0.05%) △김포한강(0.04%) △평촌(0.03%) △분당(0.02%)이 올랐다.

전셋값은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은 △서초(0.77%) △강서(0.61%) △강동(0.44%) △광진(0.30%) △노원(0.29%) △동작(0.29%) △마포(0.28%) △성동(0.27%) △영등포(0.20%) 순으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김은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임대인의 월세 선호에 따라 전세물량이 희귀해졌고 봄 이사수요와 재건축 이주수요 등이 더해지고 있어 전셋값 상승 추세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살이에 지친 세입자들이 매매에 나서면서 중소형아파트 거래로 매매시장은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구성형 기자 carlove@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2/9 (월)	발표	대구	동구	입석동	대구입석동강변해맞이타운	053)965-1020
	계약	경기	수원시	하동	힐스테이트에코광교 (~2/10) ♣	1670-1221
		서울	강남구	율현동	세곡2지구8단지(공공분양) (~2/12)	1600-3456
2/10 (화)	계약	대구	북구	금호동	e편한세상대구금호(공공분양) (~2/12)	053)311-2277
		대구	북구	태전동	대구강북협성휴포레 (~2/12)	053)636-1991
2/12 (목)	접수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수원호매실호반베르디움2단지(B-5) 1.2순위	1800-8355
		경북	경주시	용강동	경주용강협성휴포레 1순위	054)777-3006
2/13 (금)	접수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수원호매실호반베르디움2단지(B-5) 3순위	1800-8355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배곧호반베르디움3차(B11) 1.2순위	1566-0220

※(주)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자료=부동산114

2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로 인해 한산하다.

16일 △경기기 시흥 '시흥배곧호반베르디움3차' 3순위 접수가 진행되고 계약은 2건 진행된다. △대구 동구 '대구입석동강변해맞이타운'의 경우 전체 42가구가 공급됐

으며 총 청약자 수(1~3순위) 104가구가 접수해 2.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16일 계약을 진행한다. 이 외 △충북 진천군 '충북진천읍성혁신영무예다움2차 B6' 등 총 2개 사업장이 계약 일정을 진행한다.

구성형 기자 carlove@

소비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2015년 2월 13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인해 소비자와 국민 그리고 전국 양계인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합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선 문제가 된 계란가공공장은 향후 위생, 환경 등 공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련 감독기관의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폐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보도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유통으로 소비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2015. 2. 16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장 오정길 및 임직원 일동



이투데이 교육센터 대관안내

 대관 문의 대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일대 가능여부 확인 전화사업실: 02-799-2683
 대관 신청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송부 FAX: 02-784-2666
 시설 현황 스크린 프로젝터 노트북 유선 Mic 2ea Console Speaker WiFi 가능 현수막 부착 가능
 위치 안내 대방역 도보 1분, 셋강역 도보 3분, 여의도역 도보 10분



‘이투데이 | 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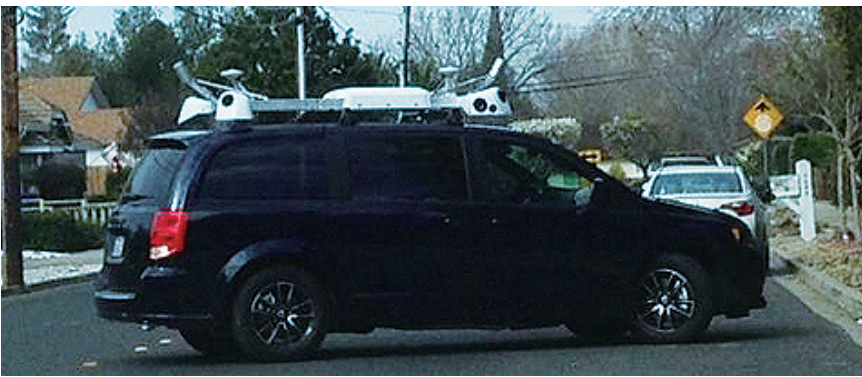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1, Yeouidaebang-ro 62-gil, Dongjak-gu, Seoul, Korea | TEL,02)799-2600 | FAX,02)784-1003 | www.etoday.co.kr



스티브 자데스키 애플 부사장

글로벌 IT업계 “대세는 미래車”

애플 ‘타이탄’팀 가동 전기배터리 미니밴 개발… 구글·소니는 무인차 도전장



최근 애플이 개발 중인 무인자동차가 미국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목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IT기업들이 전기자동차와 무인자동차 등 미래차 개발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애플이 ‘타이탄(Titan)’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미니밴을 설계 중이라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이 계획은 약 1년 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포드에 오래 근무하다가 애플로 옮겨 아이팟과 아이폰 설계 분야에서 일해 온 스티브 자데스키 부사장이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 타이탄팀 관계자들은 캐나다의 ‘마그나인테너셔널’등 자동차 제조를 맡을 능력이 있는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사무실이 모여 있는 본부 건물과 따로 떨어진 곳에 타이탄 팀은 별도 개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수백 명인 팀 규모가 1000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WSJ는 타이탄팀이 자동차 제조와 관련 로봇기술, 금속, 재료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 전기차 개발 인원 중에 메르세데스-벤츠의 연구개발(R&D) 책임자로 있다가 지난해 가을 맥시스템 엔지니어링 팀장으로 애플에 이직한 요한 뢰비르트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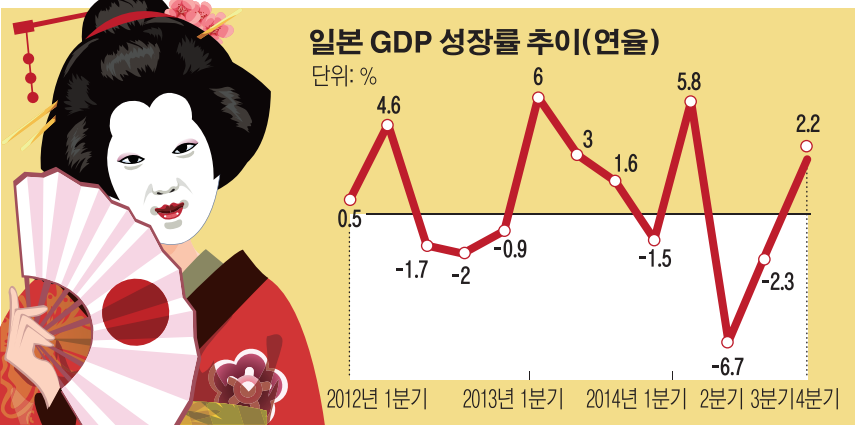
됐다고 소개했다. 애플의 디자인 책임자인 조나선 아이브가 자동차 분야 고위 임직원을 모집하는 일을 직접하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CEO는 “애플이 최근 우리 회사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해 가려고 매우 애쓰고 있으며 25만 달러(약 2억7507만원)

의 보너스와 60% 연봉 인상을 제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IT 기업인 구글은 연내 자사 개발 무인차 시험주행에 나설 계획이다. 소니도 이 분야에 베풀었다. FT에 따르면 소니는 최근 일본 로봇차 스타트업 ZMP 지분 2%를 1억 엔(약 10억원)에 매입했다. 궁극적으로 소니는 자사의 이미지센서 기술과 ZMP의 로봇 노하우가 결합한 무인차를 만들려하고 있다.

IT업체들은 스마트폰 등 기존 IT시장에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본격적인 무인차 시대에 접어들면 차량 한 대당 최대 10대의 카메라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당 단가도 스마트폰 카메라의 4-5배에 이른다. 시장조사업체 IHS는 오는 2020년에 글로벌 자동차용 카메라 판매 대수가 1억200만대로 지금의 세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日 경제 ‘부활 신호탄’?

작년 4분기 성장 2.2%

〈GDP 연율 기준〉

엔저·수출 호조 영향… 마이너스성장서 3분기 만에 회복

주택매매·내수 부진에 국제유가 하락세 경제회복 걸림돌

일본 경제가 3분기 만에 침체기에서 벗어났다.

일본 내각부는 16일 오전 작년 4분기(10-12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율 2.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은 3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세를 회복하며 확장 기조에 올라섰다. 그러나 성장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치에는 못미쳤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코노미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4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은 연율 3.6%를 기록했을 것이라 결과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개 조사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기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연율 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일본 경제는 지난해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두 개 분기 연속 각각 마이너스(-) 6.7%와 -2.3%의 위축세를 보이면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연화 약세와 이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확장세로 돌아섰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은 작년 4월 아베 신조 정부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3%포인트 인상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 심각한 내수 부진에 빠졌다. 일본은 GDP

의 약 60%를 개인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비 위축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다만 경제 지표가 호전됐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완전히 확장세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물가 상승세가 소비자신뢰지수와 개인소비를 냉각시켰다”며 “더 이상 연화 약세에 진행되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희석시켜 목표표하는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4-9월 주택 매매는 부진했고, 내수 역시 엔저에 수해를 입은 수출 만큼 회복된 것은 아니다. 연화 가치는 지난 2년간 달러에 대해 30% 가량 하락했다. 이는 일본 수출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됐다.

내수 부진과 함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국제유가 하락세도 부담이다. WSJ는 저유가가 일본의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유가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개인소비를 촉진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비용 절감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의 도노우치 수지 이코노미스트는 “개인소비 회복이 향후 경기 회복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아마존, 올 ‘드론 배송 상용화’ 미뤄진다

美 FAA ‘상업용 드론 기준’ 최종 수립 18개월 전망

업계 “정부 지나치게 신중… 자격증 기준 완화해야”

올해 안에 드론(무인기)을 이용하려면 아마존의 배달 서비스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5일(현지시간)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드론 기준 제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무게 최대 55파운드(약 25kg) △비행고도 500피트(약 152.4m) △시속 100마일(약

161km) 등을 지켜야 한다. FAA는 드론을 도입할 경우 사진, 농업, 조사, 구조작업, 다리 및 통신 타워와 같은 구조물 검사 등 여러 분야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엔 발표한 상업용 드론 운용 지침이 최종본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고 하루빨리 드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아마존 입장에서

발만 동동 구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FAA가 여론을 분석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려면 1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클 위에트라 FAA 청장은 상업용 드론 사용 기준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엔 내놓은 기준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인 항공기 산업 소식을 전하는 웹사이트 sUAS뉴스의 패트릭 이건 편집장은 “드론 사용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아마존의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긴 파이프 검사, 뉴스미디어의 사진 촬영 등도

제약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아마존, 구글 등의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소형무인기연합(Small UAV Coalition)도 정부가 기준안을 정하는 데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꼬집었다.

소형무인기연합은 “드론이 장거리 운행을 하려면 비디오폰 비롯한 다른 센서 기능은 필요한 부품”이라며 “자동차 환경에서는 이 같은 기능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사용자의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AA는 현재 17세 이상으로 항공 조종 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거친 사람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마존은 이번 FAA의 기준안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지희 기자 jhsseo@

크로아티아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취임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광장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46) 크로아티아 첫 여성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 민중주의자인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대통령은 지난 1월 결선투표에서 당시 진보성향의 이보 요시프비치 현직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외무장관, 주미대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정보 등을 역임한 그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에서 크로아티아가 분리 독립한 후 처음 탄생한 여성 대통령이다. 크로아티아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자그레브/신화연합뉴스

알리바바 ‘작통 파문’

美 SEC, 추가자료 요구

IPO 前 정보은폐 의혹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의 ‘작통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의 알리바바 위조제품 유통 방관 지적 백서와 관련해 회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고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공상총국은 지난달 말 알리바바를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의 백서를 발표했다. 이에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장마오 공상총국 국장과 면담해 작통문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중국내 갈등은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다. 알리바바가 기업공개(IPO) 전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형로펌들이 추가 급락을 이유로 투자자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SEC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기업은 IPO 신청서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법적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알리바바는 백서가 법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IPO 신청서에 공개할 의무는 없었으며 SEC 요청도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알리바바가 지원하는 콰이디다처와 텐센트가 투자한 디디다처 등 중국 양대 택시업 업체가 지난 14일 합병을 공식 발표하는 등 알리바바는 중국 IT·모바일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엄마들의 포르노 ‘그레이…’ 개봉에 英·美 소방당국 ‘비상’

도구 이용 모방 행위
구조요청 급증 우려

노골적인 성 묘사로 ‘엄마들의 포르노(mommy porn)’로 불리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벨런타인데이(2월14일)에 개봉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소방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1년 출간돼 세계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킨 이 소설의 영화 개봉으로 수감 같은 각종 도구를 이용한 모방 섹스가 늘어나 낮뜨거운 구조 요청 전화가 급증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런던소방서(LFB)의 데

이브 브라운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효과로 수감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객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해 스스로 창피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영화가 개봉하는 미국 역시 모방섹스로 인한 사고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CNN 방송은 소설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실험적인 섹스를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는 때때로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섹스 장난감과 관련한 부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두 배로 증가했고 사고 대부분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출간된 이후인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집중돼 있었다.

박스오피스를 집계하는 엑시비터 필레이션스에 따르면 영화는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15일까지 북미에서 8164만400달러(약 898억2893만원)를 벌였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글로벌 리포트

덴마크 테러 용의자 22세 덴마크인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에 걸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테러로 7명이 사상한 가운데 사살된 테러 용의자는 범죄단체 연루 전과가 있는 22세 덴마크인이라고 15일 현지 경찰이 밝혔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의 배후 지원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용의자가 폭력과 무기사용 범죄 등 몇몇 전과를 가진 덴마크인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덴마크 매체는 용의자가 2주 전 출소한 ‘오마르 엘-후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도해 중동 출신 이민자 배경의 덴마크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용의자가 첫 번째 표적으로 삼은 코펜하겐 문화센터 카페 총격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동소총을 발견함에 따라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을 전후한 시점에 보안 행적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美 박물관 ‘셀카봉 금지’ 확산

여행객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셀카봉(selfie stick)’이 미국의 주요 박물관에서 휴대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을 보호하고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셀카봉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박물관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박물관 운영 재단인 스미스소니언 재단이 운영하는 워싱턴DC의 허시온 미술관과 조각공원은 이미 셀카봉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국립미술관과 뉴욕시의 현대미술관, 쿠파 휴잇 스미스소니언 디자인 박물관 등도 셀카봉을 휴대 금지 물품으로 정했다. 재단은 나머지 박물관으

로 해당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린다 토머스 대변인은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박물관에 적용되는 방침을 만들고 있으며 셀카봉 휴대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미스소니언 재단은 워싱턴DC와 뉴욕에 각각 있는 자연사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 총 19개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들이 셀카봉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작품이 훼손될 우려를 없애고 다른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우크라 휴전협정에도 산발적 교전

15일(현지시간) 0시를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을 중단시키기 위한 휴전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산발적 교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상대방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전 협정 발효를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은 전선에서 물러나 중화기를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전체적으로 휴전이 지켜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교전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오늘 새벽 3시경에는 반군이 정부군 점령지를 10차례 공격했다”고 밝혔다.

5000~6000명의 정부군을 반군이 포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네츠크주 데발체베에서도 양측 간에 산발적 교전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4개국 정상들은 전화통화를 통해 휴전 협정 준수사항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휴전협정에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계권료 전쟁, 이젠 兆싸움



英 스카이스포츠·BT 8조에 EPL 계약
수익으로 선수 영입...경기력 향상 노력
에이전트 수수료 등 이적시장 거품 논란
“구단·리그, 관중동원 노력도 기울여야”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선 ‘억’ 소리 나는 돈이 필요했다. 전 세계 프로 스포츠의 중계권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젠 수천억 소리를 넘어 조 단위까지 솟구쳤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은 지난 11일 2016년부터 세 시즌 동안 영국 스카이스포츠·브리티시텔레콤(BT)과 총액 51억3600만 파운드(약 8조5500억원)에 중계권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지난 세 시즌 계약금 30억1800만 파운드보다 71%나 오른 역대 최고 금액이다.

EPL의 중계권료 상승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 시즌까지 EPL 중계를 맡은 스카이스포츠와 BT의 지난해 하반기 이익은 5억2700만 파운드(약 8777억원)였다. 이에 스카이스포츠와 BT 외에도 디스커버리 네트워크, BEIN 스포츠 등이 이번 EPL 중계권 입찰에 뛰어들면서 어느 해보다 치열한 중계권 경쟁이 펼쳐졌다.

중계권료 상승은 EPL만의 축복은 아니다. 세계 프로 스포츠 중 중계권료가 가장 비싼 종목은 미국프로풋볼(NFL)로 미국 4대 지상파 방송사(ABC·CBS·FOX·NBC)로부터 받은 연간 중계권료는 평균 49억 달러(약 5조원)에 달한다. NFL 결승전인 슈퍼볼의 초당 광고 단가가 1억 6000만 원에 달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메이저리그(MLB) 중계권료는 약 16억 달러(약 1조7500억원), 미국프로농구(NBA)는 연간 9억3000만 달러(약 1조200억원)를 중계권료로 벌었다. 또 미국자동차경주(NASCAR)는 7억4500만 달러(약 8170억원), 미국프로골프(PGA)투어는 7억1200만 달러(약 7810억원), 북미아이스하키(NHL)는 2억100만 달러(약 2200억원)의 중계권료 수익을 올렸다.

중계권료의 상승은 리그와 구단의 수입 증대로 이어진다. EPL은 중계권료 50%를 구단에 골고루 나눠 주고, 25%는 성적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나머지 25%를 시설 비용 형태로 배분한다. 이렇게 올린 수익으로 원하는 선수를 스카우트해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향상된 경기력은 관중 증가와 시청률 상승이라는 선순환이 이어진다.

그러나 EPL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프로축구 리그는 EPL의 중계권료 상승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PL은 중계권료 상승으로 인한 전문학적 수익을 챙기면서 우수 선수 영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기 때문이다. 상위 구단뿐 아니라 크리스탈팰리스, 힐시터, 퀸즈파크레인저스 등 만년 하위권 중소 구단들 역시 선수 영입에 투자를 늘리면서 선수 이적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결국 EPL 구단들의 무분별한 선수 영입 투자는 유럽 축구 시장 전체의 선수 몸값과 에이전트 수수료에 거품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성희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교수는 “승자 독식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지만 중계권료는 구단의 관중 동원 능력과 비례한다. 리그 성적이 좋지 않아도 중계권료가 높은 구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결국 구단의 운영 노력이 중계권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거품 논란을 말하기 전에 구단과 리그가 얼마나 관중 동원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프로야구 연봉과 학력은 비례하지 않는다

2015년 역대연봉 선수 TOP11				
순위	구단명	선수명	연봉	학력
1	한화	김태균	15억원	고졸
2	SK	최정	10억원	고졸
2	두산	장원준	10억원	고졸
2	롯데	강민호	10억원	고졸
5	삼성	이승엽	9억원	고졸
6	삼성	윤성환	8억원	—
6	LG	박용택	8억원	—
6	LG	이병규(9번)	8억원	—
9	삼성	장원생	7억5000만원	고졸
9	삼성	안지환	7억5000만원	고졸
9	두산	김현수	7억5000만원	고졸

2015년 프로야구 구단별 1군엔트리 등록 선수 평균 연봉

구단	평균 연봉	구단	평균 연봉
삼성	2억9074만원	두산	1억9226만원
한화	2억5804만원	넥센	1억7422만원
SK	2억3459만원	NC	1억3978만원
LG	2억2852만원	KIA	1억3670만원
롯데	2억489만원	kt	7274만원

김태균·최정·장원준...‘톱5’가 고졸

‘억대’ 140명 중 절반 넘는 87명

프로야구 세계에서는 가방끈이 길다고 몸값이 함께 뛰는 건 아니었다.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발표한 2015년 선수단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5 시즌 역대 연봉 선수 140명 중 고졸 출신은 절반이 넘는 87명(62.14%)이었다.

최고 연봉 톱5인 한화 김태균(15억원), SK 최정(10억원), 두산 장원준(10억원), 롯데 강민호(10억원), 삼성 이승엽(9억원) 모두 고졸이었다. 올해 새로 역대 연봉자 명단에 오른 선수 중 최고액인 넥센 서건창(3억원)도 광주일고 졸업 후 2008년 프로로 직행했다. 최고 인상을(2600만원)→9500만원, 265.4%)을 기록한 NC 박민우 역시 2012년 휘문고 졸업 후 바로 프로 무대를 밟았다.

포지션별 최고 연봉 선수를 살펴보면, 투수는 지난해 FA로 롯데에서 두산으로 이적하며 역대 최고 인상

액(6억8000만원)을 기록한 장원준(10억원)이었다. 포수는 강민호(10억원), 1루수는 김태균(15억원), 2루수는 한화 정근우(7억원), 3루수는 최정(7억원)이 최고 연봉 선수에 올랐다. 유격수는 NC 손시현이 4억원을 기록했다. 외야수는 LG의 이병규(9번)와 박용택이 각각 8억원으로 가장 높고, 두산 김현수가 7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명타자는 21년차 최고 연봉 기록을 갱신 이승엽(9억원)이 차지했다. 이들로 팀을 구성한다면 1년간 선수 운영비용으로만 85억5000만원이 든다.

올 시즌 1군 엔트리(외국인선수 제외)의 평균 연봉은 1억9325만원으로 지난해 1억8432만원보다 893만원이 올랐다.

구단별 평균 연봉은 삼성이 2억9074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한화 2억5804만원, SK가 2억345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LG, 롯데까지 10개 구단 중 5개 구단 평균 연봉이 2억원을 넘었다.

최성근 기자 sgchoi@

비타민하우스

100세 시대! 건강이 염려되는 중장년층의 현명한 선택!

비타민하우스 콤비자임

1588-8529

건강한 관절과 연골을 위해 태어난 힘찬관절

순도 95%이상의 N-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 관절고민 안녕~

V-GFE곡물발효효소 II (부원료), 세라지임스 등 복합효소(부원료) 함유! 하루 2정,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고 상쾌한 발걸음으로 바꿔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100세 시대 당신을 위한 튼튼관절을 선물합니다.

중년 뼈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소플라본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콩 추출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이솔라지제(부원료)+V-GFE곡물발효효소 II (부원료) 복합효소(부원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갱년기, 폐경기 40~50대 중년여성의 뼈건강을 위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중년여성에게 필요한 활력에너지를 하루 한정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전국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코너에서 만나보세요.

퍼블릭 골프장 늘고 요금은 더 착해지고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은 늘어나고 골프 요금은 더 내릴 전망이다. 정부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거나 노산한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 전환과 카드·캐디 선택제 도입 골프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발언에 따른 대책안으로, 최근 전국 골프 관련 단체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중이 골프

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 이용료는 대당 6만~8만원, 캐디비는 팀당(4명 기준) 10만~12만원 정도여서 골프 고객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외에도 1인당 5만원 정도를 더 낸다. 만약 카드·캐디 선택제가 도입되면 골프 비용은 5만원 정도 더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골프장은 카트와 캐디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부 회원

정부, 법정관리·도산 회원제 골프장 전환 검토

카드·캐디 선택제 시행 땀 1인당 5만원 비용 절약

“골프장 고강도 구조조정·개방 등 전략 펼쳐야”

를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이용 요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이용료가 비싼 회원제 골프장 중 법정관리, 도산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곳을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 수는 총 507개소다. 이중 상당수 골프장은 빚이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골프장도 22개로 21개소가 회원제 골프장이다. 김기세 K레저개발 대표는 “적자에 시달리는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약 140개소에 이르는 퍼블릭 골프장은 대부분 영업이익을 내는 상황이라 퍼블릭 골프장 매수 희망자

제 골프장 외에는 노캐디제로 운영된다. 카트도 셀프 라운드제(직접 운전)다. 정부는 카드·캐디 선택제를 공공부문 골프장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골프장에는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골프장에는 캐디 선택제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오르고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카드·캐디 선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1인당 5만원의 비용이 절감돼 골프 대중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 “골프장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구조조정과 캐디 선택제 도입, 비골퍼들에게 골프장 개방 등 경영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나영길 감독 ‘호산나’ 베를린 단편 황금곰상

예종 졸업작품… 박찬욱 ‘과란만장’ 이후 두 번째

최우수작품상에는 이란 자파르 파나히 감독 ‘택시’

한국영화로서 단편부문에서 경쟁한 나영길 감독의 ‘호산나’가 14일(현지시간) 막내린 제65회 베를린영화제에서 단편 황금곰상의 영예를 안았다.

‘호산나’는 나영길(33) 감독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졸업작품으로, 아프거나 다친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들을 되살리는 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나 감독은 “끝없는 절망으로의 추락,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영화의 단편 황금곰상 수상은 2011년 박찬욱·박찬경 감독의 ‘과란만장’ 이후 두 번째다.

이번 65회 베를린영화제에선 이란의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가 연출한 ‘택시’가 최우수작품상인 황금곰상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지난해 중국 영화 ‘백일영화’(다아오 이난 감독)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 영화가 최고 영예인 황금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택시’는 파나히 감독이 스스로 노란색 택시를 몰고 다니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다양한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을 담았다.

파나히 감독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로 이번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를 대신해 조카 하나 사이디가 대리 수상했고, 수상 소감에서 “뛰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감동적이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블랙 스완’ 등을 연출한 대런 아로노프스키 심사위원장은 “파나히 감독은 예술혼을 잃지 않고 영화를 만들었다.



그의 영화는 예술, 공동체, 조국, 관객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파나히 감독은 2000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고, 2006년과 2013년 베를린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은곰상은 철레 파블로 라르리나 감독의 ‘더 클럽’에 돌아갔다. ‘더 클럽’은 성직을 박탈당한 소아상에 사제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최우수감독상(은곰상)은 폴란드의 말고차타 주모프스카 감독과 루마니아의 라두 주데 감독이 공동 수상했다.

여우주연상(은곰상)과 남우주연상(은곰상)은 영화 45년에 출연한 영국 배우 사뮈엘 램플링과 톰 커트니가 각각 수상했다.

독일 표현주의 영화기법을 정작시킨 알프레드 바우어 촬영감독의 이름을 딴 알프레드 바우어상(은곰상)은 처음으로 이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대된 파데말라 하이라 부스타만테 감독의 화산 소재 영화 ‘익스카날’에 돌아갔다.

지난 5일 개막한 베를린영화제에서는 황금곰상을 두고 19개 작품이 경쟁했으며, 한국영화는 초청받지 못했고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두선 기자 sun@



14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프라가티마йд 전시장에서 소설가 신경숙씨가 인도 독자들이 가져온 힌디어판 ‘엄마를 부탁해’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12억 인도인에게도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작가, 현지 독자 만나 ‘엄마’ 주제 대화 나뉨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작가 신경숙씨가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해 현지 독자들을 만났다.

‘엄마를 부탁해’는 2008년 처음 발표돼 해외 33개국에서 출간됐다. 인도에서는 2013년 힌디어 판이 출간됐고 영어판으로 접한 독자도 많다. 신 작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소설에 담긴 ‘엄마’의 모습을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신 작가는 14일(현지시간) 뉴델리 프라가티마йд 전시장에서 진행된 시인 디빅 라메시의 대담에서 “작품 속 엄마가 인도에서 볼 수 있는 엄마와 비슷한데 한국에서는 이례적인 모습 아니냐”는 질문에 “1950년대 전쟁을 겪은 한국 사회의 전형적 엄마”라며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또 현대로 바뀌면서 지금도 함께 사는 엄마”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전에는 엄마는 원래 강인하

다고 오해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엄마라고 생각한다”며 “누가 무엇이 엄마를 강하게 만들었을까”라고 덧붙였다.

신 작가는 “글은 마침표를 찍고 나면 작가의 손을 떠나는 것이고 독자가 자기 삶의 공간에서 읽기에 합류하면 그때 완성되는 것”이라면서 “사회가 서로 배려해주는 엄마의 마음을 가질 때 실존형 엄마가 돌아오는 것 아니겠나”며 ‘모성의 복원’을 강조했다.

이날 대담은 14일 개막한 ‘2015 뉴델리 국제도서전’의 부대 행사로 마련됐다.

한국은 이번 도서전에서 ‘관심 국가’로 참여해 최승호·최정례 시인의 시 낭송회,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힌디어 판 출간 행사, 김영하와 신경숙 등 한국 대표소설가 10명을 소개하는 한국 작가 특별전 등을 마련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한 집안 다섯 자매 “해군과 결혼했어요”

한집에 다섯 자매가 모두 해군과 결혼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5일 해군에 따르면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사는 조근제(59)씨의 다섯 자매인 은진(39), 미화(37), 미진(37), 은희(33), 진주(32)씨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해군과 결혼했다.

조씨의 첫째 사위는 2함대 소속 박철우 준위, 둘째 사위 역시 2함대 소속인 김성주 상사, 셋째 사위는 1함대 소속인 김동진 원사, 넷째 사위는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정준혁 상사, 막내 사위는 3함대 소속의 최육성 상사다.

말딸인 은진씨는 1998년 박 준위와 결혼했다. 박 준위는 은진씨를 마산 고속터미널에서 보고 첫눈에 반해 자신의 본가가 있는 광주행 버스를 포기하고 은진씨를 따라 무작정 서울행 버스에 올라 정혼했다고 한다.

셋째인 미진씨는 박 준위의 소개로 김원사를 만나 1999년 결혼했고, 둘째인 미화씨는 진해에 있는 박 준위 부부 집에서 함께 살다가 진해군항에서 근무하는 김



한 집안의 다섯 자매가 모두 해군과 결혼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끈다. 2008년 11월16일 막내 딸(조진주 씨) 결혼식장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해군

상사를 만나 결혼했다.

넷째 은희씨는 셋째 언니 부부 집에서 살다가 집으로 초대된 정 상사를 만나 2007년 결혼했고, 막내인 진주씨는 정 상사의 소개로 만난 최 상사와 2008년 결혼했다.

장인인 조씨는 딸들이 사위들을 데려올 때마다 해군 정복을 입은 늙름하고 당당한 모습에 아무 망설임 없이 결혼을 허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명절 때가 되면 장인, 장모의 마음은 편치 않다. 군인을 남편으로 둔 다섯 자매가 한꺼번에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설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근무지가 동서, 남해에 따로 떨어져 있는데다 둘째 사위는 합정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섯 자매가 부부동반으로 마지막으로 모인 때는 2008년 막내딸의 결혼식이었다.

좌영길 기자 jyg97@



오바마를 성폭행 용의자로

美 뉴스 사진 잘못 내보내

미국의 한 지방방송사가 성폭행 용의자 기사를 다루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잘못 내보내는 방송 실수를 저질렀다.

워싱턴타임스와 타임스오브센디에이고 등 미국 언론은 케이블방송 폭스5센디에이고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밤 10시44분께 여성 앵커 캐서린 베이드의 진행으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래픽 실수로 오바마 사진을 넣었다고 소개했다.

센디에이고 경찰이 성폭행 사건 용의자인 프란시스코 소사(20)를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엉뚱하게 오바마 사진을 넣은 것. 사진 밑에는 ‘불기소라는 자막도 삽입됐다.

해당 방송사는 5초간 문제의 화면을 방영하고서 즉각 실수를 깨닫고 사진을 내렸다. 그러나 방송국은 이것은 작은 실수일 뿐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며 사과하지는 않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초콜릿 페레로로쉐 CEO

밸런타인데이에 사망

이탈리아 최대 부자이자 세계적인 제과업체 ‘페레로 그룹’의 최고경영자(CEO)인 미켈레 페레로가 밸런타인데이인 지난 14일(현지시간) 향년 89세 나이로 사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페레로 CEO가 숙환 끝에 모나코 동북부 휴양도시 몬테카를로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2주 전까지만 해도 헬기를 이용해 몬테카를로 자택에서 이탈리아 북서부 알바에 있는 회사까지 매일 출근해 신제품을 시식하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가문의 이름을 따 지은 페레로 그룹은 코코아와 헤이즐넛을 넣어 만든 스프레드(초콜릿 잼)인 ‘누텔라’, 초콜릿 ‘페레로로쉐’, 킨더 에그 등 유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 피에트로 페레로는 2차대전 기간 코코아가 배급되던 시기 코코아에 헤이즐넛을 곁들여 만든 스프레드 누텔라를 개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캔디맨” 페레로와 그의 가족은 234억 달러(약 25조 74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포브스 집계 세계 30번째 부호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강원래 27년 만에 학사모

“희망주는 공연 만들게요”

“어려운 시기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기에 재기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장앜을 딛고 꿈을 이루는 ‘희망의 아이 콘’ 가수 강원래(46)씨가 27년 만에 빛나는 졸업장을 품에 안았다.

강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문화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강릉대에 입학한 강씨는 개인 사정으로 중퇴했다가 2012년 서울문화예술대 연기예술학과 2학년에 편입해 학업을 이어왔다.

강씨는 “가수 활동 경험을 기반 삼아 창작 뮤지컬 제작에 도전해 볼 생각”이라며 “뮤지컬 감독의 꿈을 이루려고 늦깎이지만 대학생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수업이 없었던대 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여러모로 배려해주신 교수님과 직원, 학생들께 감사드립니다”는 소감을 밝혔다.

“운동주 시인, 옥사 20개월 뒤 사면”

日 교수, 판결문 분석 후 주장

운동주 시인이 일본의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뒤 20개월여 만에 사면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운동주 서거 70주년인 16일 일본 법원의 판결문과 미주노 나오키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교수·교토지검의 설명 등을 종합한 결과 운동주는 1946년 11월 3일 사면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운동주는 1944년 3월 31일 일본 교토지검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판결을 받았고, 상소를 포기해 다음날 형이 확정됐다.

트위터에 쓴 한줄 때문에… 해고·인종차별주의자 낙인

NYT, SNS 잘못 사용 사례 소개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주말판 매거진에서 잘못된 트위터 한 줄로 폐가 망신한 IAC 홍보 임원 사례를 소개했다.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 기업 IAC의 여성 홍보임원이던 저스틴 새코는 지난 2013년 30세 때 트위터에 올린 글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당시 그는 휴가를 받아 뉴욕에서 가족들이

교토지검이 보관 중인 판결문에는 운동주의 성이 ‘윌이’ 아닌 ‘히리누마로’ 표기돼 있다. 성명 표기 바로 위에 “쇼와 21년(1946년) 칙령 제511호 대사령에 의해 사면됐다”는 문구의 도장이 찍혀 있다.

쇼와 21년 칙령 제511호 대사령은 일본 헌법 공포일인 1946년 11월 3일 발표된 사면 조치의 일종이며 운동주에게 적용된 치안유지법 위반죄도 사면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만약 운동주가 복역 중 사망(1945년 2월 16일)하지 않고 생존했다면 가경해도 사면의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아프리카로 가고 있다. 에이즈에 안 걸렸을 좋겠다. 농담이냐. 난 백인인데”라는 트윗을 올렸다. 흑인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고 은연 중에 비꼰 것이다.

그의 트위터 팔로어는 17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팔로어 1만5000명을 보유한 파워 트위터 사용자가 그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새코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게 됐다. IAC는 곧바로 그를 해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부음

▲김중환(한영전자 대표)·중회(우리카드 본부장)·총성·혜경·혜운·혜영·아정(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씨 모친상, 정현숙·김세정·김미숙씨 시모상, 신금석(과천대 교수)씨 장모상 = 15일 오후 5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7시, 02-3410-3000

▲황해운(광주드림 기자)·강윤(서울 성사중학교 보건교사)씨 부친상 = 15일 오후, 광주 만평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9시, 062-611-0000

▲김사용(한국철도시설공단 인재개발처 교수)·사인(사인·동덕여대 교수)씨 부친상 = 15일 오전 9시 41분,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42-220-9870

▲홍광의(데일리모닝 편집장)씨 상배, 홍정훈(한국수출입은행 대리)·정태씨 모친상 = 15일 오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62-220-3352



공병호의
독서산책

구마 겐고 '작은 건축'

직업인으로 뛰어나면서 동시에 글 쓰는 재주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건축가 구마 겐고이다. 그의 책은 분량에 관계없이 건축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읽기 유익한 메시지를 던진다. 또한 건축 분야에 관한 흥미로운 지식이나 최신 흐름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구마 겐고의 '작은 건축'(안그라픽스)은 작은 분량의 책이지만 그 속에 건축사 전반의 흐름과 최신 경향이 담겨 있다. 물론 작가 특유의 시각을 담은 책이긴 하지만 "이처럼 자신만의 시각으로 업과 세상을 볼 수 있구나"라는 놀라움을 안겨주는 책이다.

인간은 세계적 대화재나 대지진 등과 같은 재앙을 겪으면서 더 크고 더 튼튼한 건물을 지향해왔다.

연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이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저자는 나뭇의 독특한 시각을 제시한다. 어떤 시대 사조나 전체적 건축가들이 건축의 흐름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구마 겐고는 거대한 재해와 같은 비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건축의 흐름이 크게 요동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재난과 같은 비극이야말로 건축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재해를 만나거나 비극을 당하면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평화가 계속될 때, 즉 행복할 때는 과거의 행동을 되풀이할 뿐 나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극을 계기로 발명이나 진보의 흡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한다.

1755년 11월 1일 유럽 전역을 공포에 빠뜨린 리스본 대지진은 전 세계가 7억명에 지나지 않았던 시대에 5만~6만명의 사망자를 냈다. 지진

이후 '신에게만 의지할 수 없다'는 감성 변화가 '신에게 의지하는 시대'의 건축이었던 고전주의 건축과 고딕 건축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1966년 런던 대화재, 1871년 10월 시카고 대화재 등도 건축의 흐름을 뒤흔든 기념비적 재난들이다. 특히 시카고 대화재는 목조 저층 도시에 서 단번에 중고층 불연도시를 낳게 된다. '강하고 합리적인 큰 건축'의 경연장처럼 바뀐 곳이 지금의 시카고다.

현대 건축에 큰 충격은 준 것은 일본의 쓰나미에 이은 원전사고다. 구마 겐고가 건축의 미래상을 '작은 건축'에 두는 것도 재난이 준 교훈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강하고 합리적이었어야 할 건축물들이 쓰나미에 매없이 휩쓸려 사라지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면 하나의 사상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사상이 시작되는 거대한 변화를 느꼈다."

김승열의 경제와 법률



법무법인 양현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전통적인 분쟁해결 기관인 법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소송을 도입해 사법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재제도는 아직 아날로그시대를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선 단계에서는 일부 온라인 분쟁해결절차(ODR: On-line Dispute Resolution)를 도입했지만 중재심리 단계에서는 큰 진전이 없어 보인다. 미국에서는 일반 사기업에서조차 O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절차의 사회 인프라가 아직 낙후되었다는 점은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

적어도 온라인상의 거래로 발생한 분쟁은 동일하게 온라인 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 법원과 같이 분쟁해결 기관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

온라인 분쟁 해결을 위한 '사이버 법정'

법 소비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만족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단지 서면의 제출 수준에 그치는 전자소송은 질과 양적으로 크게 변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사이버 법정의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정성, 보안성 그리고 신뢰성 등 부분에서 아직도 극복해야 할 점들이 많겠지만, 잠정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상호 접목시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ODR로 나아가야 한다. 디지털시대에 거래뿐만 아니라 분쟁해결 절차 역시 온라인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법원에서는 상고법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안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4심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시대에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보인다. 현재 3심제도 역시 헌법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현행 3심제의 운용조차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1심에서 좀 더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2심은 속심이 아니라, 1심

판결의 당부만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이 자유로이 상고하도록 하고는, 대부분 사건을 2개월 만에 심리 불속행으로 제대로 심리 없이 가각하는 관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사법 불신의 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사이버법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서는 사이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 법률을 제정한 점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안된 ODR이라는 사회적 인프라는 궁극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ODR의 활성화는 사법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ODR시장을 선도할 기반 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따라서 ODR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사법 소비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만족하게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차체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ODR 모델로 발전시켜 미래의 ODR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해 본다.

日 원전 사고, 현대 건축에 큰 충격

“강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건축물이

매없이 휩쓸려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사상이 시작되는 변화 느꼈다”

콘크리트와 철골 중심의 '강하고 합리적이고 큰 건축'이 이상적인 건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런데 2011년 동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와 뒤를 이은 원전사고는 '큰 건축'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 책은 저자가 추구하는 '작은 건축'이 어떤 것이며, 실험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작은 건축'을 지향하는 구마 겐고의 건축은 '물 벽돌' '워터 브랜치'라는 개념을 활용한 전사용 건축에서부터 오페라하우스와 세계적 브랜드 매장에까지 이르고 있다. 크고 현대적인 건축보다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이용해 일반적인 통념을 넘어서는, 앞서가는 건축을 실현하고 있다. 그의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지만 이 책의 독특한 가치는 '작은 건축'이 등장하게 된 건축사의 흐름을 일목요

이후 '신에게만 의지할 수 없다'는 감성 변화가 '신에게 의지하는 시대'의 건축이었던 고전주의 건축과 고딕 건축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1966년 런던 대화재, 1871년 10월 시카고 대화재 등도 건축의 흐름을 뒤흔든 기념비적 재난들이다. 특히 시카고 대화재는 목조 저층 도시에 서 단번에 중고층 불연도시를 낳게 된다. '강하고 합리적인 큰 건축'의 경연장처럼 바뀐 곳이 지금의 시카고다.

현대 건축에 큰 충격은 준 것은 일본의 쓰나미에 이은 원전사고다. 구마 겐고가 건축의 미래상을 '작은 건축'에 두는 것도 재난이 준 교훈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강하고 합리적이었어야 할 건축물들이 쓰나미에 매없이 휩쓸려 사라지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면 하나의 사상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사상이 시작되는 거대한 변화를 느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생각 2월 16일

東奔西走(동분서주) 동으로 뛰고 서로 달고 바쁘다 바빠

모래부터 설날연휴다. 토 일요일이 이어져 올해에는 닷새를 쉬게 됐다. 다들 바쁜 설날이지만 요즘 가장 바빠 보이는 건 택배회사다. 온라인 주문상품이 많아서인지 배달 물량은 작년 설 때보다 20%가량 늘었다고 한다. 택배원들은 낮도 밤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한다. 그야말로 동분서주다.

이 말은 중국 전한(前漢)시대 초연수(焦延壽)의 주역해설서 '역림(易林)'에 나온 것이다. 동분서주를 줄인 게 분주인데, '주'가 달리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면 '분'은 무슨 일인가를 위해, 무슨 일인가 생겨서 된다는 뜻이다. 동치서주(東馳西走) 동주서

분(東走西奔)도 같은 말이다.

중국에서는 동분서주보다 동포서전(東跑西顛)을 더 쓰는 것 같다. 포나 전이나 다 달린다는 뜻이지만 포에는 땅을 하빈다, 포에는 엮드려진다는 뜻도 있다. 재미있는 말이다. 분주불가(奔走不暇)는 바빠서 겨를이 없다는 말이다.

하는 일 없이 그저 바쁜 건 무사분주(無事奔走)다. 친일 매국노 조중응(趙重應·1860~1919)에 관한 글에 이런 대목이 있다. '그는 세간에서 무사분주(無事奔走)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안 끼는 친일 단체가 없을 정도로 광적인 친일배였다. (중략) 1916년에는 대정(大正)친목회 및

한성부민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일제 식민지 통치 기반의 구축에 누구보다 열을 올렸다. 일제의 어용 유학기관인 경학원의 설립도 동분서주하면서 선전하고 다녔다.'

이 경우는 무사분주가 아니라 악행분주(惡行奔走)라 하는 게 맞겠다.

북한 숙담에 '오목장이 얇만 분주해도 재 불 장만 분다'는 말이 있는데, 크게 선 장이 아무리 분주해도 장에 온 이들은 자기 불 일을 본다라는 뜻이다. 복잡한 속에서도 제 잊속만 쟁긴다는 뜻도 있다. 오목장은 대목장과 같은 말.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fusedtree@

오늘의 e가정

www.baekn.com

첫 단독 내한공연 아트 가평클

배극남닷컴은 14일 아트 가평클의 공연장을 찾았다.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아트 가평클의 첫 내한공연이 열렸다. 공연장에는 그를 보기 위해 3500여명의 중장년층 팬들이 모여 있었다. 아트 가평클은 첫 곡이 끝난 후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팬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이날 아트 가평클은 'Bridge Over Troubled Water', 'The Boxer', 'Scarborough Fair', 'Bright Eyes', 'The Sound Of Silence' 등 한국팬들에게도 익숙한 사이먼 앤 가펄클 듀오 시절 불렀던 팝명곡들을 열창했다. 또 그는 9세 막내 아들을 위해 지은 시와 자신의 음악 인생을 담은 자작시를 한국 팬들에게 소개했다. 공연의 스페셜 게스트로는 그의 장남 아트 주니어가 등장해 함께 얼굴을 맞대며 'Let It Be Me'를 불렀다.

아트 가평클은 마지막 곡으로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밝힌 'Bridge Over Troubled Water'를 다시 한 번 불렀다. 그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무대 위의 조명이 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한국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오연진 기자 yerin2837@



온라인
와글와글



도시가스 요금 3월부터 인하, 겨울 다 가니까...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인하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다. 온라인상에는 "고-맙습니다. 이제 겨울이다 지나가네요", "1월부터 인하한다고 하더니 겨울 끝나고 하나? 다음 겨울쯤 바로 인상하겠지", "가스 사용량이 적은 시

기인 봄엔 내리고 가스 사용량이 많은 시기인 가을부터는 올리고...전형적인 조삼모사네", "국제유가 내린 지가 언젠데 이제야 도시가스 요금을 내리다니" 등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난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해서인지 내린다고 하니가 반갑네", "비난하는 사람들아, 한 해만 보지 말고 멀리 보자", "그래도 안 내린 것보다는 낫지" 등 옹호 발언도 눈에 띄었다. 김은총 기자 kec@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핀테크 산업 전략

를 보유한 빅 브라더(Big Brother)에게 핀테크 산업의 핵심 역할을 맡겨야 한다. 그런데 이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야기해 산업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킨다. 사실상 미국, 영국 등 핀테크 선도 국가들의 고민이 바로 이 점에 있다. 애플과 구글에 역할을 맡기고 싶으나, 거대 IT공룡의 슈퍼 파워화를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차피 글로벌 금융 경쟁력이 없는 중국(신용카드 보급률 8% 수준)에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기록권을 넘어 은행, 보험 등 핀테크 전 영역을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내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알리바바는 2004년 지급결제 기업인 알리페에서 시작해 2007년 알리바바 파이낸셜이라는 대부업으로 확장했다. 알리페의 빅 데이터에서 대부업의 핵심인 개인별 실시간 신용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13년에는 알리페이 계정 잔액을 활용한 MMF 투자인 위어바오 상품을 거쳐 텐센트와 중앙 온라인 보험을 설립한다. 그리고 올해 온라인 은행에 진출한다.

대한민국의 핀테크 전략은 크게 두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점진적 혁신 전략이다. 기존의 금융권의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 금융권이 작은 핀테크 IT기업을 인수합병하게 될 것이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주로 알고리즘, 보안, 서비스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등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핀테크 창업이 촉진돼야 한다. 거래 규모가 작을 때는 자본금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금산분리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비밀 유지 등의 공정경쟁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그러하듯, 금융기관이 이를 위한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화돼야 한다.

다음으로는 와해적 혁신 전략이다. 금융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빅 데이터 분야에서 거대 금융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빅 데이터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빅 데이터를 현명하게 개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개별 고객의 데이터를 제3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과 금융 집중의 위험 분산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금융이란 거래 주체의 신용도와 가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임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빅 데이터 금융 기업은 빅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음카카오가 보유한 빅 데이터를 이용한 제3의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알고리즘에 기반한 획기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애플과 구글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생태계가 형성되듯 핀테크 금융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한국의 핀테크 산업 전략이 될 것이다.

연결 플랫폼과 빅 데이터 플랫폼이란 핀테크의 본질에 입각한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상민의 현장

문화부 차장 겸 스포츠팀장

이광종 감독이 그리운 까닭

임창우(23·울산)가 120분간의 혈투에 마침표를 찍었다. 임창우의 발을 떠난 공은 상대 진영 골네트를 흔들며 한국 축구에 28년 만의 우승컵을 안겼다. 뜨거운 가을이었다. 지난해 한국 축구가 추억하는 최고의 명장면은 단연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결승전 북한과의 드라마틱한 연장 승부였다. 결승골 주인공은 해외파도, K리그 클래식도 아닌 K리그 챌린지(2부 리그)에서 뛰던 무명 임창우였다. 그 파격적인 선수 선발 뒤에 이광종(51) 감독이 있었다.

기대하지 않았기에 감동은 더 컸다. 손흥민(23·레버쿠젠)의 대표팀 합류 불발과 윤일록(23·FC서울), 김신욱(27·울산)의 경기 중 부상 하차까지 겪으며 역대 최악체라는 혹평을 들었다. 인천아시안게임 전에는 선수 선발과 답답한 경기력으로 수차례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이광종 감독은 보잘 것 없어 보였던 선수들에게 날개를 달았고, 선수들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똘똘 뭏혔다. 조직력은 경기를 할수록 탄탄해졌고, 마침내 무실점 우승(7경기 13골 0실점)이라는 믿기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모든 것을 입증했다. 비록 홈에서 열린 아시아 대회였지만 이광종호가 그러란 필드 위 환상 하모니는 우리 시대 리더십의 자화상이 됐다.

이광종 감독의 지도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2000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활동하며 유소년축구 경험을 쌓았고, 2012년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우승과 2013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인천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올림픽 대표팀의 새 사령탑에 올랐다.

하지만 지금 이광종 감독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지난달 2015 태국 킹스컵 축구대회 출전 차 태국을 방문했지만 고열증세로 귀국, 정밀검사 결과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광종 감독의 뜻하지 않은 하차에 한국 축구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대한축구협회는 이광종 감독의 후임으로 신태용(45) 감독을 임명했지만 이광종 감독의 빈자리는 여전하다.

그래서인지 이광종 감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광종 감독의 치료비와 현역 복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빠른 복귀를 바라는 팬들의 편지와 현혈증이 대한축구협회에 날아들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이광종 감독의 빈자리가 이리도 컸을까. 감독으로서 자리를 지킬 때보다 존재감이 더하다. 감독은 뛰어난 용병술과 리더십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또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재감이 느껴진다.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명장이 될 수 없는 이유일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이다. 실천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은 임으로 존재감을 나타내지만 빈자리 아쉬움은 덜하다. 반면 묵묵히 자신의 싸움을 이어가는 승부사는 자리를 버렸을 때 비로소 존재감이 느껴진다. 이광종 감독은 그런 존재다. 그다지 화려하지 않지만 결국 결과로 보여줬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있어 그가 더 그럴다.

golf5@



정재욱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과장

애니콜부터 갤럭시까지

‘아르마니, 베르사체, 뱅앤올룹슨...’ 이들 브랜드의 공통점은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특별한’ 휴대폰을 선보였다는 것이다.

1994년 5월 ‘한국 지형에 강하다’라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그해 10월 국내의 특수한 지형 구조에 맞춰 통화 성공률을 대폭 향상시킨 ‘SH-770’ 모델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애니콜(Anycall)’ 브랜드의 첫 번째 모델이란 점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03년, 삼성전자 휴대폰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 단일 모델로선 사상 최초로 1000만대가 팔린 제품(SGH-T100)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후 ‘SGH-E700’, ‘블루블랙폰’, ‘울트라에디션’, ‘SGH-E250’ 등 수많은 제품이 1000만대 판매를 돌파한 ‘걸작(Masterpiece)’의 반열에 올랐다.

삼성 휴대폰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월드 퍼스트 ‘전략(Strategy)’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로망’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던 2004년에 삼성전자는 세계 어디서든 통하

가 가능한 ‘월드폰’을 개발해 다시 한 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 휴대폰 중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모델이 많다.

대표적인 모델은 바로 1999년 세계 최초로 출시한 시계형 휴대폰 ‘와치폰(SPH-WP10)’이다. 당시 ‘007 제임스 본드폰’으로도 불렸던 이 제품은 무게가 50g에 불과한 데다 90분 연속통화 기능까지 갖추고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다.

2011년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첫선을 보인 ‘갤럭시노트’는 패블릿의 효시가 됐다. 출시 10개월 만에 700만대 이상 판매되며 ‘갤럭시S 시리즈’와 더불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대표 브랜드로 부상했다.

2010년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S는 ‘단순한 최신 휴대폰’이 아니라 스마트 라이프 구현 수단’을 지향하며 개발된 제품이다. 갤럭시S 시리즈는 지금도 스마트폰 제품 중 가장 반짝이며 빛나는 ‘은하수(galaxy)’ 같은 존재로 전 세계 소비자에게 사랑 받고 있다.



강인호 미래산업부/kanginh@

녹십자 ‘일동 M&A’ 입장 밝혀야

“신용은 황금보다 더 귀중하다.” 이 영국 속담처럼 신용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업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무형의 재산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초 녹십자가 일동제약 지주사 전환을 반대하며 경영권 분쟁에 처음 불을 지폈을 당시, 조순대 녹십자 사장(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년 뒤 일동제약 경영권 분쟁이 녹십자의 주주제안서 발송으로 인해 재점화됐지만, 녹십자 측은 이번에도 “주주제안서 발송은 적대적 M&A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 차원”이라며 적대적 M&A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녹십자는 적대적 M&A로 해석될 만한 추가 지분 매입과 행동들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대주주인 일동제약 측과 2대 주주인 녹십자 측의 작은 지분 차이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쉽사리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게다가 녹십자가 일동제약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지분을 확대한 데 이어 경영 참여를 위한 액션까지 보이자, 일동제약 측은 적대적 M&A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일동제약 측은 “적대적인 M&A가 아니라는 보다 구체적인 신뢰할 수 있는 입장과 조치를 (녹십자에) 요구한다”면서 16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먹는 자보다 먹힐 위험에 처한 자가 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진정 녹십자가 주주로서 일동제약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면, 오늘날까지 ‘적대적 M&A는 아니다’라는 명시적인 답변을 일동제약에 해줘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도 언론을 통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공표해야 한다. 경영권 분쟁 이슈를 투자 기회로 삼으려는 자들에게 기업의 리더십에 기초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주의 역할이 아닐까?



한 줄의 기록에서 시작된 끝없는 상상력, 김별아 장편소설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사랑, 김별아 에세이

사륙판 | 양장본 | 272쪽 | 13,800원

“이 은밀하고 간절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주실 전가요?”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 간 단종과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 65년의 처절한 사랑이 김별아의 소설로 다시 태어나다!

칼끝을 건듯 살아온 인생, 끝내 살아내리라!

왕비에서 평민으로, 날품팔이꾼, 걸인, 바구니까지 피와 탐욕으로 점철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켜낸 은혜(恩愛)의 기억 단종 비 정순왕후가 고백하는 두 해 남짓의 사랑, 예순다섯 해 그리움

“김별아가 썼다. 이제 내 차례다. 낭독콘서트 <영영이별 영이별>이라는 이름으로 활자와 배우가 만나는 시간. 이 필럼은 무엇일까?”

—연극인 박정자

그녀의 존재를 말하면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한다. 세상이 외면했던 65년의 고독을 말하면, 경악한다. 그녀가 옮겨잡았던 운기, 이름 모를 여인들의 거친 손을 말하면 눈물짓는다. 삶은 수다란 이유와 목적을 떠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유이자 목적임을, 나 또한 그녀를 쓰고 나서야 알았다. 알아가고 있다. —『작가의 말』 중에서

김별아 장편소설

영영이별 영이별

www.dongsung-pharm.co.kr

동성제약



지금은 화이트 타임!
“밤 10시부터 랑스크림하세요”



멜라닌 케어로 깨끗하고 환한 피부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부를 가장 잘 아는 화이트닝
동성 랑스크림

동성 랑스크림은 나날이 쌓여가는 세월의 흔적을 멜라닌케어로
깨끗하고 환한 피부로 돌려드립니다.

☞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제품 구입 및 문의 : 080 020 2500 | www.dseshop.co.kr | www.ilovenature.co.kr

식약처 인증
미백기능성
화장품입니다



126,000 × 2,500,000

〈올해 춘절 방한 중국인 관광객 예상 인원〉

〈2013년 방한 중국인 1인당 지출액, 단위:원〉

왕서방, 씹씹이도 왕 유통업계 '함박웃음'

Cover Story 설레는 설

요우커가 온다

춘절 연휴 18-24일... 한달 쉬는 곳도
면세점·관련업계 벌써부터 '붉은물결'
中 관광객 2013년 7조6722억 지출
'묻지마·쓸어담기식 쇼핑'은 옛말
가로수길 찾고 호텔에서 VVIP서비스

연초 유통업계의 성적표를 죄우할 중국 춘절(春節)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다. 벌써부터 서울 명동 거리는 붉게 물들며 춘절 연휴 중국 관광객 맞이에 한창이다. 중국 지역의 공식적인 춘절 연휴는 2월 18일부터 24일까지지만, 가장 대박을 맞은 곳도 있어 유통업계가 본격적인 중국인 마케팅에 돌입할 것"이라며 "그 시합대가 바로 이번 춘절"이라고 말했다.

이번 춘절에 한국을 방문하는 요우커의 수는 12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한국관광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춘절 연휴(2014년 1월 31일~2월 6일) 9만7000명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올해 방문객 수는 2011년(3만6000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중 중국인 방문객수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612만명으로 2010년 187만명에 비해 3.5배가량 늘었다. 이들이 한국 방문 때 쓰고 간 돈도 1인당 2271달러(2013년)로 2013년 총 지출한 돈은 총 7조6722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0년(1조8789억 원)의 4.1배로, 지난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총 지출한 액수의 49%를 차지한다. 요우커의 강력한 구매력은 면세점에서 중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만 봐도 알 수 있다. 롯데면세점에서 지난해 외국인 전체 매출 중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70%에 달했다. 2011년 15%에서 무려 5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에 반해 일본인 관광객 비중은 2011년 30%에서 지난해 5%로 급감했다. 신라면세점에서도 지난해 외국인 매출 중 88%가 요우커들 지갑에서 나왔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개별 화장품 업체나 뷰티 업체들도 지난해 요우커를 상대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올해 본격적으로 그들의 지갑을 공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우커들의 한국 나들이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단체 관광을 통해 면세점과 고급 등을 둘러본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개별여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 명동 등 특정 지역에만 몰려 '묻지마식 쇼핑', '쓸어담기식 쇼핑'을 하는 건 이제 옛말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사전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후 꼼꼼하게 쇼핑하는 것은 물론, 가로수길·경리단길 등 새로운 관광명소를 찾는 요우커들이 늘어나고 있다.

호텔과 백화점, 성형외과에서 VVIP 서비스를 받으며 럭셔리한 쇼핑과 관광을 즐기는가 하면, 휴대 헤어숍을 찾고 유명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며 여유를 즐기는 고객들도 대상으로 한 유통업체 등의 VVIP 서비스의 속살을 들여다 봤다. 또 개별 여행을 온 중국인 가족과 하루 종일 동행 취재하면서 그들의 달라진 관광 트렌드를 자세히 살펴봤다.

윤철규 기자 yoonck@

커버스토리 18-19면

롯데면세점 중국인 매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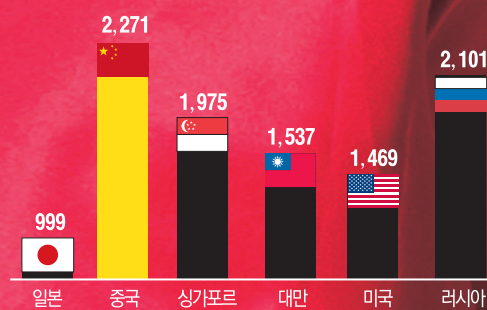
방한 중국인 개별여행객 주요 지출 경비
단위: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외래객 평균
쇼핑비	839	1,051	1,409	1,431	706
숙박비	341	315	292	386	399
식음료비	222	288	285	344	278
오락	69	80	86	95	59
문화 관련 지출	16	24	99	101	36
총비용	1,584	1,928	2,317	2,523	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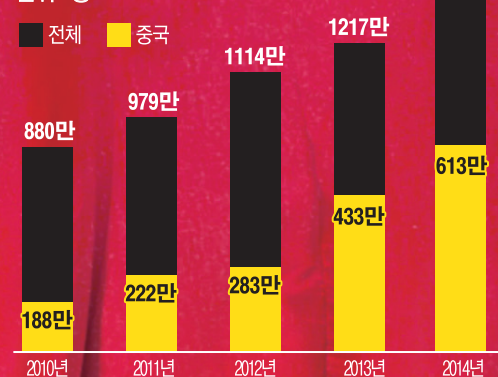
※ 외래객 평균은 2013년 기준

※ 출처: 한국관광공사(2008~2009), 문화체육관광부(2010~2013), 외래관광객실태조사

방한 관광객 1인 지출 경비
단위: 달러



최근 방한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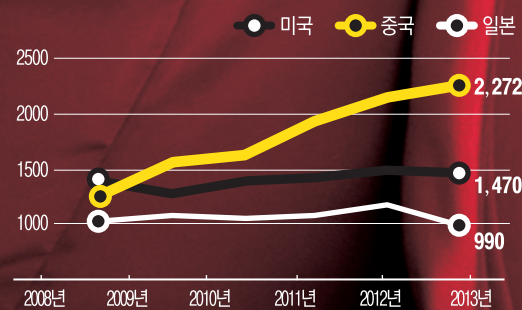


※ 2015년 전체 방한 외래관광객 목표치: 1550만명 / 2017년 목표치: 2000만명
※ 2015년 중국 관광객 목표치: 713만5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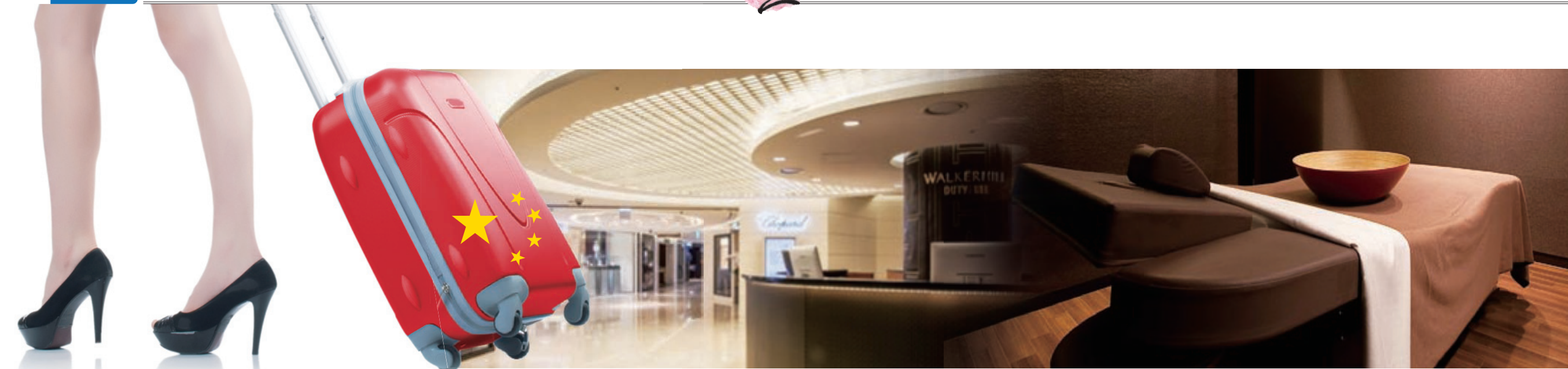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춘절연휴 방한 중국인 추이
단위: 명



미·중·일 방한 관광객 평균 지출액 추이
단위: 달러(2008~2013년)



※ 출처: 한국관광공사(2008~2009), 문화체육관광부(2010~2013),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서울 광장동 워커힐면세점 시계 및 보석 전문매장(사진 왼쪽). 리츠칼튼 페보니아 스파.

입원실+간병+통역+요리사 풀옵션 ‘황제성형’ 인기

진화하는 맞춤형 VVIP 패키지

성형외과가 거리에 즐비한 압구정역 일대, 건물마다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낀 여성들이 나와 차에 오르기 시작한다. 들리는 소리는 한국말이 아닌 중국어다. 메이(28)씨는 “A성형외과와 중국인 관광객 VIP 패키지에는 성형수술은 물론 호텔 숙박과 호텔과 병원 이동을 리무진 서비스까지 포함됐다”며 “내일 아침 수술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병원에 들릴 때에도 리무진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수술만 받을 때보다 비용은 훨씬 비싸지만, 비용에 상관없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며 “직접 경험해 보니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정도로 편한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

요우커 맞춤형 마케팅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지갑을 열 때 한번에 5000만원에서 1억원가량을 통 크게 지출하는 VVIP(초우량고객) 요우커들을 위한 특별한 마케팅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VVIP 유커들이 경제력과 능력을 과감하게 드러내며 돈을 쏟아내는 곳은 바로 성형외과와 피부과다. 압구정과 강남 일대에 밀집한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과거 성형 브로커를 통해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내고 유커들을 접했지만,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손님들이 나서고 있다. 이들이 유커를 상대로 제공하는 성형 패키지에는 그 비용과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 제공으로 놀라움을 자아낸다.

‘성형’ 패키지

호텔과 병원 연계... 리무진 대기

병원 자체적으로 상품 만들기도

‘스드메’ 패키지

한류스타처럼 화장하고 웨딩촬영

인터컨티넨탈호텔 업계 첫 판매

은 기본이다. 또 비상연락망·관광지 안내·교통편 안내 등 호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도 중국어 매뉴얼로 제작해 요우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조식에 중국인이 좋아하는 메뉴를 추가하고, 요우커 투숙객 실에는 고급 차(茶)와 찻주전자를 제공한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련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호텔 업계 처음으로 유투버들을 위한 일일 '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판매를 시작했다. 한류 스타의 메이크업에 반한 이들이 그들과 똑같은 메이크업을 받고, 예쁜 모습을 사진과 앨범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감성을 적く 공략한 것이다.

병원과 밀접해 있는 호텔들은 죽과 수프 등으로 구성된 '환자식'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한 유우커는 "세종호텔의 환자식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 내 대표적인 '메디탈로' 알려져 있는 리츠칼튼은 A2층에 위치한 메이클리닉, 페보니아 스파 이용 고객들의 접근성을 위해 진입로 공사도 새롭게 실시했다.

면세점 업계는 전용 VIP 라운지 및 통역 제공 등의 기본 서비스와 더불어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 광장동 위커했호텔 내 위커했면세점은 최근 시계·보석 전문 매장을 리뉴얼해 오픈했다. 이들 매장은 철저히 요우커 입맛에 맞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꾸었다.

새로 오픈한 시계·보석 매장은 브레게, 피아제, 예거 르플르트, 롤렉스와 같은 명품 브랜드부터 패션 시계 브랜드까지 약 70여개 브랜드 제품이 마련돼 있다. 중국 VIP 가이드가 365일 상주하며, 외국인 전용 VIP 라운지에서는 프라이빗 컨설팅을 비롯해 희소성이 높은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용에 상관없이 특급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요구자들의 취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런 취향을 잘 반영해 마케팅을 구사하는 것이 국내 업체들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알구정에 위치한 A성형외과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브로커를 끼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입수한 뒤 병원을 찾는 똑똑한 유투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성형은 경제력과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고, 성형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 자신만을 위한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병원이 VVIP 패키지로 내건 서비스에는 호텔식 입원실 제공과 간병인, 통역사 제공, 요리의 환자식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병원 관계자는 “요구 매출이 한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70%를 차지한다”고 귀띔했다.

강남의 B성형외과는 호텔식 입원실은 물론, 인근의 호텔 숙박도 제공한다. 중국인 환자들을 위한 간병인, 통역사 등 동원 인력만 100여명에 달한다. 이 병원 관계자는 "입원을 해야 하는 약과와 가슴성형을 제외하고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쉬면 되기 때문에 인근 호텔 숙박을 제공하게 됐다"며 "간호사가 직접 호텔까지 데려다주고, 1대 1 맞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호텔들의 걸음도 분주하다. 요우커의 취향을 고려한 특급 서비스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체크인 시 중국어로 제작한 호텔 이용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

한국여행 트렌드가 바뀐다

쇼핑만 하는 단체관광 줄고
가족·연인과 개별여행 늘어

2013년 강제쇼핑 금지 '여유법' 제기

개별여행 만족도 높아 재방문을 상승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3년 중국인 관광객 4402명을 대상으로 한 여행 유형 조사를 보면 개별여행(53.8%)이 단체여행(42.8%)보다 11%포인트 더 높았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과거 중국인 관광객은 단체 패키지여행이 많았지만 지난 2013년부터 개별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관광에서 개별여행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여유법(旅遊法)'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2013년 4월 구체적인 쇼핑장소의 지정과 원가 이하의 상품판매 등을 금지하는 여유법을 제정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중국 여유법의 구체적 내용은 △여행사의 비합리적
인 저가를 통한 모객 금지 △쇼핑 등 별도항목을 통한

수수료 수취 금지 △구체적인 쇼핑 장소 지정 금지 등이다. 이러한 조치로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상품가격이 50~100%가량 상승했다. 특히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관광 위주의 태국, 대만, 우리나라 관광 상품가격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 일부 여행사들이 내놓은 '쇼핑' 위주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불만도 단체관광객들을 떠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패키지 상품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은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면서 "상당수 여행사가 이익을 위해 쇼핑 위주로 여행 일정을 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관광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뽕뽕하게 짜인 일정을 소화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소규모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별여행을 선택하는 요우커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개별관광객들이 늘어나면 일반 소매점
과 음식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체관광으로 온 중국인들은 중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소매점이나 식당 위주로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면 개별관광객들은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선택한 곳을 위주로 방문하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높다”고 말했다.



요우커 씹씹이, 본지 기자가 동행해보니...

화장품·명품 구입에만 2100만원 아낌없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둔 지난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매장에서 만난 천아민(19·이하 가명)양은 자동차부품 사업을 하는 아버지 천정춘(42)씨와 어머니 황후이(37)씨, 남동생 천스광(12)군과 함께 서울에 도착했다. 4박 5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천씨 가족의 24시간을 들여다봤다.

일일동행 취재를 약속한 이튿날 아침, 천씨 가족이 묵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다. 황씨는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애초 일본을 가려고 했지만, 남편과 딸이 (한국을) 좋아해서 바꿨다"고 말했다. 그녀가 가진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맛있는 음식이 많고, 택시 기사분들이 친절해서 정말 좋았다"였다. 쇼핑은 중국인 관광객들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황씨는 "여행 경비를 뺀 쇼핑 예산은 10만 위안(약 1700만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도락' 자유 여행 즐거 = 이날 천씨 가족의 관광 일정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남산타워를 방문한 뒤 홍대 근처 헤어숍을 들른다는 것이다. 이들은 첫 번째 목적지인 남산타워에 올라 여느 관광객들처럼 사진을 찍고,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서울 전경을 감상하며 연신 즐거워했다.

남산타워에서 적당히 시간을 보낸 천씨 가족은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 신라면세점으로 향했다. 황씨는 기자에게 "롯데면세점에서 340만원짜리 가방을 사려다가 원하는 색상이 없어서 못샀는데, 신라면세점에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면세점 직원이 신라면세점에 전화를 걸어 재고를 확인해줬다"면서 "두 면세점은 경쟁사일텐데 서비스가 정말 훌륭하다"고 감탄했다.

신라면세점 근처에 다다랐을 때 앞서가던 택시에서 천씨 부부가 내렸다. 이어 "미네패오(뽕)"라고 말하며 먼저 가있으라고 손짓했다. 잠시 후 천씨 부부의 손에는 서울 장충동 유명 과자점인 '태극당'의 빵 한 봉지가 들려져 있었다.

택시로 이동하며 식도락 여행 하루 먹고 즐기는데 100만원

4박5일간 여행경비 3000만원

외국인 할인 등 혜택 줄이어

의류·화장품 면세점 쇼핑 만족

천씨 가족은 한국 음식을 좋아해 중국 본토에서 추천한 음식점보다는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식당을 찾아다녔다. 황씨는 "어제는 떡볶이랑 짬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면서 "주변에 한국 음식이 입에 안맞아 못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가족은 다 행히 잘 맞는다"고 말했다. 천씨는 기자에게 내일 저녁엔 1인당 2만~3만원 가격대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고 추천을 부탁하기도 했다.

오후 3시께 인사동에 위치한 J한정식집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4년째 살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지인의 추천을 받은 곳이다. 주문은 떡갈비, 생선구이, 탕채, 보쌈 등이 포함된 1인당 3만5000원짜리 정

식 세트였다.

헤어숍 예약시간이 4시인 탓에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미용실에 도착하자마자 아빠인 천씨는 이발을 위해 자리에 앉았고, 파마를 하기로 한 엄마와 딸은 헤어디자이너와 각각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고르며 상담을 했다.

모녀의 공통된 주문은 '어려 보이게 해달라'는 것. 무려 상담 40분 만에 천양은 숭례교의 시스루 뱅 헤어스타일을 선택했고, 황씨는 차예련의 단발머리 웨이브로 결정했다. 미용실에서 천씨 가족은 외국인 할인 20%와 예약할인 5%, 현금할인 5% 등 총 30%를 할인받아 30만원 정도를 결제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은 노랑진 수산시장이었다. 이들 가족은 평소 중국에서 접하기 어려운 싱싱한 회와 전복, 새우 소금구이를 먹은 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숙소로 돌아갔다.

◇'통 큰 소비' 4박5일 경비는 총 3000만원 = 천씨 가족은 단체관광객들의 여행 일정, 소비 패턴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쇼핑은 기본으로 즐기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며 여유로운 여행을 즐겼다.

이날 하루 천씨 가족이 쇼핑을 제외하고, 식사와 헤어 관리에 지출한 금액은 100만원 정도. 천씨 가족은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롯데면세점과 명품 일대를 쇼핑할 예정이다.

천씨 가족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 온라인 면세점에서 '미샤', '후', '리더스팩' 등 2만 위안(약 352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했다. 한국에 입국한 다음날에는 '버버리'와 '폴로' 등에서 천씨의 정장과 천군의 옷을 구매했고 '루이비통'과 '토즈'에서 황씨의 신발을 구입하는 등 쇼핑으로만 6만 위안(약 1056만원)을 썼다.

황씨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에 '프라다'에서 신어 본 구두를, 천씨는 200만원대 캐시미어 코트를 구매할 예정이다. 황씨가 전해준 340만원대 B브랜드 가방도 쇼핑 리스트에 올라있다. '후'와 '헤라'에서 화장품까지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어서 하룻동안 700만원이 넘는 쇼핑을 할 계획이다. 당초 예상한 10만 위안보다 더 많은 12만 위안(약 2100만원)을 쇼핑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 경비는 1인당 평균 232만원으로 조사됐다. 천씨 가족은 평균 경비의 3배 가까이 지출하는 셈이다.

천씨 가족은 의류와 가방, 화장품 등의 쇼핑은 대부분 면세점에서 했다. 외국인 할인에 호텔 할인이 더해져 더욱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씨 가족에게 다음 번에 또 한국을 방문할 생각이 있냐고 물으니 "스(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천양은 "가족이 한국에 처음 온건데 다들 너무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다음 번에는 부산이나 제주도 등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조승예·정혜민 기자 sysy@



요우커가 사랑하는 한류 브랜드

빈폴·MCM... "이건 반드시 사야죠"

화장품은 '후'... 김수현 효과 '빈폴' 불티
'정관장 황간천' 등 면세점 전용 제품 인기

지난해에만 14조원을 지출한 요우커(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장바구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지난 14일 명동 한복관에서 만난 류리(38·여)씨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지인들에게 화장품과 건강식품, 패션 제품을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고 한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LG생활건강의 '후' 세트, 마스크팩, 정관장 홍삼, MCM 가방, 빈폴 의류 및 가방을 꼽았다. 그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 및 식품에 대해 무한 신뢰를 보였다.

요우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단연 LG생활건강의 '후'다. 이 같은 선호도는 롯데면세점 화장품 매출 순위 1위와 2위 자리를 바꿨다. 전통적으로 선두를 유지해 온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2위로 밀려나고, LG생활건강의 후가 선두로 치고 나왔다. '라네즈'가 3위를 유지한 가운데, '헤라'가 수입 고가 화장품 에스티로더를 밀어내고 4위에 올라섰다. '잇즈스킨'은 중저가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톱5에 이름을 올렸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장식의 패키지 세트가 인기다"며 "면세점 판매 1위 품목인 스킨·로션·크림으로 구성된 '후' 천기단 화현 3종 세트(31만원대)는 지난해 춘절 시즌에 이어 올해 춘절(2월 18~24일)에도 약 3만 개 판매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화장품을 구입한 요우커들은 다음 순서로 패션 제품을 담기 시작한다. 이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는 'MCM'과 제일모직의 '빈폴', 이랜드의 '타니위니' 등이 대표적이다.

도심에 있는 면세점과 백화점 매장은 요우커들이 줄을 서서 매장에 들어가야 할 정도이며, 요우커 10명 중 4명이 MCM 백팩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빅뱅의 지드래곤이 처음 메기 시작한 MCM 백팩은 요우커의 필수 아이템이 됐다.

성주그룹 관계자는 "2년 연속 한 백화점에서 중국 국경절 기간에 요우커가 뽑은 1위 브랜드로 MCM이 선정됐다"며 "국내 면세 시장에서도 MCM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100%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패션부문 2위, 종합 3위에 등극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요우커가 가장 많이 찾는 MCM 제품 라인으로 '밀라' '스타크 브룩' '리즈 쇼퍼'를 꼽았다.

제일모직의 빈폴은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류 스타 김수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요우커들은 빈폴아웃도어 모델인 김수현의 옷차림을 따라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매장의 브로마이드는 가져다 놓자마자 무섭게 없어질 정도다. 핵심 상품인 바람막이, 도브다운은 물론, 티셔츠, 팬츠, 액세서리까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요우커들은 홍삼 관련 건강기능식품 쇼핑에도 열을 올린다. 면세점에서 정관장 홍삼을 구입하는 요우커들은 이제 낮익은 광경이다. 이에 따라 인삼공사의 면세점 매출도 지난 2~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중국인을 직접 겨냥한 면세점 전용제품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KGCI인삼공사가 중국 관광객을 겨냥해 만든 간 보호 기능성 홍삼제품인 '정관장 황간천'은 출시 4개월 만에 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황간천'은 출시 초기부터 철저히 중국인에 초점을 맞춰 농축액보다 먹기 간편하도록 알약 형태로 개발했다. 포장 역시 요우커들이 선호하는 황금색을 사용해 마치 금과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했고, 이동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가볍게 만들었다.

이선에 기자 Lsa@

부드러움 속에 흐르는 강인함,
독보적인 격을 지나

설화수 맨 본유에센스

나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남자의 피부는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화수의 안티에이징 정수가 담긴 정량단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 주름, 탄력, 칙칙함을 한번에 케어해주는 설화수 맨 본유에센스가 시간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남자의 피부를 완성해줍니다.

Sulwhasoo
MEN



Sulwhasoo
MEN
INNER CHARGING SERUM
본유에센스

본유에센스
INNER CHARGING SERUM
MEN
201ml/3.3oz

설 연휴 귀성길,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엉금엉금 기어가는 차량 공무나만 바라보며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견뎠을까 싶다. 다행히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요즘 설 연휴 차 막히는 귀성길, 가족들과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내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소개한다.



새해 많이 받으세요

◇ 어떤 내비가 1등일까... "고향길 빨리빨리" = 연휴에 가장 유용한 모바일 서비스는 뭐니 뭐니 해도 내비게이션이다. 막히는 길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은 물론 최단거리 정보를 제공해 누구보다 빠르게 고향집에 도착할 수 있게 도와준다.

SK플래닛의 T맵은 명절 연휴 기간 교통정보를 분석해 언제 출발하면 빨리 갈지를 알려주는 '언제갈까'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면 도착 시간을 안내하는 등의 기능으로 T맵 사용자라면 누구나 앱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받을 수 있다.

또 지난 명절 검색어를 분석해 △고속도로 휴게소별 음식 정보를 소개하는 '휴게소 대표음식' △명절 기간 인기 높은 전국 추천 문화장소 'it Place 잇플' △고향에서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주변 재래시장' 찾기 기능 등을 제공한다.

KT의 '올레내비'는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의 주행 중인 택시들이 보내주는 교통량 정보와 매일 올레내비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보내는 정보, tbs 교통방송에서 받는 실시간 돌발 교통정보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빠르고 정확한 길'을 안내해준다.

또 최저가 주유소, 대형마트 영업시간/휴무일, 목적지 인근 할인쿠폰 및 올레 멤버십 가맹점 등

뽕뽕 뚫리는 고향길... '내비앱' 교통·할인·맛집정보 한눈에

뽕뽕 터지는 고향집... e-북·방송·영화 서비스에 게임앱도

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블랙박스, 실시간 교통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서비스, 고객 간 위치 공유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이번 설 연휴를 맞아 U+NaviRea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전국 목적지의 정확한 위치를 업데이트했다. 여기에 새 주소는 물론 신규로 건설된 고속도로, 설 연휴 기간 사용이 제한된 도로 등도 반영했다.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교통정보 등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또 로드뷰를 탑재해 실제 도로사진을 제공하는 '내비 리얼(U+NaviReal)'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서비스는 전국의 주요 교차로와 고속도로 분기점에 적용돼 헛갈리는 초행길도 사진 그대로 안내받으며 주행할 수 있다.

◇ '통화·콘텐츠' 이동3사 무료 설 서비스 다양 = SK텔레콤은 설 연휴 기간인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B tv 모바일' 월정액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통탐에블루션(LTE) 데이터

통화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LTE 데이터 통화료가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KBS-MBC-SBS 등 지상파 채널, tvN 등 CJ 계열의 모든 채널, jibc 등 종편 4개 채널, 24시간 음악방송 채널 등 총 82개의 실시간 채널과 3만여 편의 다시 보기 콘텐츠 등 B tv 모바일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가 해당된다.

KT도 설 연휴를 맞아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했다. 우선 무료 콘텐츠를 늘렸다. '나의사랑 나의 신부' '비긴어게인' '라퐁젤' 등 최근 개봉한 인기작과 '위기의 주부들' 등 미드도 제공된다.

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구글플레이 영화와 이북(e-book) 콘텐츠를 신용카드 없이 결제 가능한 'KT 후불결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는 23일까지 KT후불결제 서비스 오픈 기념 영화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고향 가는 길 지루하지 않게 영화를 모바일로 즐기는 '유플릭스 무비(UflixMovie)'를 준비했다. 월 7000원으로 영화

는 물론 미드 등의 해외 TV 시리즈물까지 1만 8000편의 주문형 비디오(VOD)를 무제한 볼 수 있다. 또 UHD 화질과 웅장한 입체음향을 갖춘 tv Gwoofer를 통해 집에서도 최신 영화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 차례상 차리기부터 웃놀이까지... 유용한 앱 = '제사의 정석'은 명절 제사상 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제사상 차리는 법, 제사 방법, 지방 쓰는 법 등 제사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사용자들이 올린 차림 포토도 유용하다.

'다같이 웃놀이'는 온 가족이 함께 웃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게임 앱으로 단말기를 흔들거나 터치하는 방식으로 웃놀이가 진행된다.

'응급의료 정보'는 설 연휴 갑자기 가족이나 친지가 아플 경우 주변의 의료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앱이다.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응급의료기관 정보, 관할 119 연결,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 등 다양한 관련 정보가 영상, 이미지, 문자 등 멀티미디어로 제공된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전국 고속도로, 주요 국도, 간선도로의 교통 상황을 표시해주는 앱으로, 특히 고속도로의 방향별 전체 소요시간을 보여줘 전체 소통 상황을 파악, 교통 체증을 피해 갈 수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업무 PC 및 BYOD 기기 보안을 위한 5대 수칙

- 1 중요한 데이터·문서는 다수의 공간에 백업해둔다.
- 2 메인 컴퓨터는 시스템 전체를 백업해둔다.
- 3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버전으로 유지한다.
- 4 기업 데이터는 강화된 보안 솔루션을 이용한다.
- 5 사용중인 솔루션의 기술지원 여부를 체크한다.

“설 연휴, 털리고 낚이지 마세요” 기업해킹·스미싱 주의보

이번 설은 주말을 포함해 5일간 연휴다. 월차 등 휴가를 활용하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다. 이에 각종 전산시스템에 외부 액세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요 데이터 유출, 서버 해킹 등의 보안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크로니스는 최근 2015년 설 연휴를 앞둔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PC 등의 기기 보안을 위한 5대 수칙'을 발표했다.

우선 자리를 떠나기 전, 중요한 데이터와 문서는 PC, 개인 스마트폰, 이동식 저장장치 등 다수의 물리적 공간에 백업해 두어야 한다. 메인 컴퓨터는 시스템 전체를 백업해 둔다. 갑작스러운 시스템 사고에 시스템 백업만 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 데이터 백업에만 의존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또는 물리적 재해에 따른 컴퓨터 작동 중단 및 애플리케이션 손상 시, 기존의 컴퓨터 환경으로 완벽히 복구되기 어려울 수 있다.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기업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강화된 보안 솔루션을 이용한다.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ID와 비밀번호뿐 아니라, 해당 계정과 연결된 모바일 기기도 인증받아야 접속 가능한 '이중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면 좋다.

또 사용 중인 솔루션의 기술지원 여부를 체크한다. 보안, 백업 솔루션을 구축해 둔 기업이라도 보안 업데이트나 버그 수정, 패치 등의 기술지원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는 “설 연휴가 길어 개인 및 기업 고객의 데이터 보호가 가장 염려된다”며 “철저한 관리 정책 수립과 충분한 보안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 스마트워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를 맞아 스미싱 주의보도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설 연휴 분위기를 틈타 '설 선물' 등을 사칭한 스미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회사에서는 설 선물 배송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안내 메시지(SMS)를 보내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를 수신할 경우 무심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휴 기간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코드(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 예방 및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별 지능형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특이점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 방법 및 그 기구 매체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ViRobot DataEraser X v1.0

제품가입문의: 02) 3676-1100

www.hauri.co.kr

배터리 수명 늘리는 팁

방전후 충전하면
수명이 늘어난다 **거짓**

왜 내 스마트기기 배터리는 남의 것보다 빨리 소모될까? 전문가들은 습관만 바뀌도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충고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겠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쓰는 배터리가 어떤 녀석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가 늘 지니고 다니는 기기, 예컨대 스마트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태블릿 PC 등은 대부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자주 충전할수록 오래 간다. 반대로 말하면 완전 방전이 되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사실 과거에는 완전 방전을 한 뒤에 충전을 하면 더 오래 간다는 말이 있었다. 이는 1990년대 전자기기에 많이 사용하던 니켈 계열 전지에는 해당되는 말이다. 하지만 리튬 계열 배터리는 완전 방전이 되면 배터리 내 전자의 흐름이 나빠져 수명이 짧아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마트기기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되기 전에 꺼진다.

리튬 이온 충전지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히 충전한 후 20~50% 정도 남아 있을 때까지 사용하고 다시 충전을 하는 게 좋다.

만약 출장 등으로 오랜 시간 스마트기기를 쓰지 않을 때에는 배터리만 분리해서 완전히 충전한 다음 보관하는 것이 좋다.

더워·추워·습기에 취약...10~30도 유지

사용않는 앱·블루투스·GPS 종료해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충전을 해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지 않는다. 대부분 리튬 계열 배터리에는 '잠자기 기능'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최대한 천천히 방전이 된다. 그리고 깨어날 정도의 전기는 가지고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배터리가 죽는 현상은 없다. 하지만 수개월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두번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잠에 빠지거나, 깨어나도 비실대는 경우가 많으니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충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할 경우는 영상 1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보관해 주는 것이 좋다. 배터리는 지나친 고온과 저온을 싫어한다. 한겨울 스키장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평소보다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여름에도 고온에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차안에 뒀다가 폭발하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배터리는 습기와는 상극이다. 어둡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간혹 냉장고에 쿠킹 포일로 포장해 보관하면 성능이 유지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배터리를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스마트기기에서 쓰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이나 게임, 인터넷은 그때그때 종료하는 게 좋다. 종료하지 않고 계속 돌 경우 배터리가 계속 소모될 뿐만 아니라 발열도 심해 배터리가 급격히 소모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램을 최적화하거나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꺼줘야 한다. GPS 역시 전력 소모가 크다. 위치 확인이 필요한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GPS 기능을 종료시켜 스마트폰 온도가 올라가는 걸 줄이는 게 좋다.

박성제 기자 psj@

2%

“전방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방전 배터리 살리는 한마디

귀성길 틈새 배터리 충전법

올해 설연휴 귀성길 고속도로 위에서 보내야 할 시간은? 국토교통부는 서울~부산 기준으로 7시간 20분 가량을 예상했다. 긴 긴 정체를 견디기 위해 스마트기기를 꺼내 지루함과 짜증을 달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량은 1시간 17분에 달한다. 문제는 급속 방전되는 배터리. 설연휴 기간만 되면 더 허약해지는 배터리가 야속하지만 하다. 가야 할 길은 멀고 온갖 재미는 스마트기기 안에 다 있는데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틈새 배터리 충전법을 소개한다.

휴게소 콘센트는 TV·자판기 근처에
‘플러거’ 전국 3만개 무료충전소 등
매장형 충전기 ‘폰밥’ 국내 2000곳에
KTX 객실사이 1000원에 급속충전
샤오미·안랩 등 ‘보조배터리’ 2만원대

◇휴게소의 오아시스 인포메이션 센터 = 배터리 부족증을 앓는 이에게 휴게소 인포메이션센터는 오아시스다. 멀티탭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충전하려면 기기를 꺼둔 채 충전하는 게 좋다. 애플 기기는 충전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괜히 헛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맡기면 된다.

하지만 연휴기간에는 경쟁자가 많을 수 있다. 이때는 휴게소 구석구석을 뒤져야 한다. TV 밑이나 자판기 근처를 잘 뒤져보면 콘센트가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휴게소는 콘센트를 아주 잘 숨긴 경우도 있는데, 청소기를 돌리기 위한 콘센트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니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면 있다. 다만 휴대폰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흠.

이도 안 되면 휴게소 관리실을 찾거나 매장 직원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국도로 간다? ‘플러거’ 앱만 깔면 끝 = 마이코의 ‘플러거’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리컨밸리로 놀라게 됐다. 플러거는 배터리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상가 곳곳을 지도로 표시한 서비스로, 충전기 자체가 없어도 충전을 할 수 있는 상가를 소개한다. 현재 서울·부산·대구 지역에 약 3만개의 충전장소가 등록돼 있다.

매장형 충전 서비스인 ‘폰밥’도 있다. 폰밥은 커피숍이나 빵집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매장 전용 서비스다. 사용자가 공공장소에서 대여하고 충전 후 반납하는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근거리 무선 송수신 기술(NFC) 기능을 활용해 폰밥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해당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폰밥’은 이미 국내 2000여 곳에 비치돼 있다.

◇KTX에는 휴대폰 충전 기기가 있다 = KTX를 뒀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객실과 객실 사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기기가 비치돼 있기 때문이다. 충전요금은 1000원이고, 1시간 정도면 충전이 완료된다. 아이폰의 경우 배터리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휴대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휴대용 보조 배터리 하나쯤은 필수 =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면 휴대용 보조 배터리 하나쯤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즘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있는 제품은 중국 샤오미의 보조배터리다. 쇼핑몰마다 다르지만, 10400mAh(밀리암페어) 모델의 경우 국내 가격은 1만9900원이며, 16000mAh 용량의 보조배터리 역시 2만원 수준이다. 가격이 너무 싸서 ‘대륙의 실수’라고 불릴 정도인데, 좀 무겁다는 것을 제외하면 가격 대비 성능은 최고로 진다. 최근 출시된 16000mAh 모델을 보면 USB포트가 2개라 2개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고, 배터리 충전 시간도 빠른 편이다.

조금 더 고급형을 본다면 카노(KANO) Q5 파워뱅크 7800mAh(이하 파워뱅크)가 있다. 파워뱅크의 크기는 2.2cm 두께에 5.9cmX8.9cm 정도이다. 파워뱅크 역시 USB 충전 포트가 2개다. 하나는 5v-1000mAh, 또 다른 하나는 5v-2만1000mAh로 출력되는데, 가능하면 전자는 아이폰을 후자엔 안드로이드폰을 충전하는 게 좋다. 가격은 2만원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

안랩이 13일 출시한 휴대용 보조 배터리도 이목을 끌고 있다. 안랩 휴대용 USB 멀티충전기(MP-508)는 무려 5개의 USB충전 포트(급속 및 대용량 충전 포트 2개와 일반 충전 포트 2개, 갤럭시 탭 최적화 포트 1개)로 구성돼 전원 케이블 하나만 콘센트에 꽂아 여러 스마트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성제 기자 psj@



왼쪽부터 무료충전 장소 알려주는 앱 ‘플러거’, 매장형 충전기 ‘폰밥’, KTX 위치한 ‘유료 충전기’, 샤오미 ‘보조배터리’

Hi! Seoul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

FORCS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O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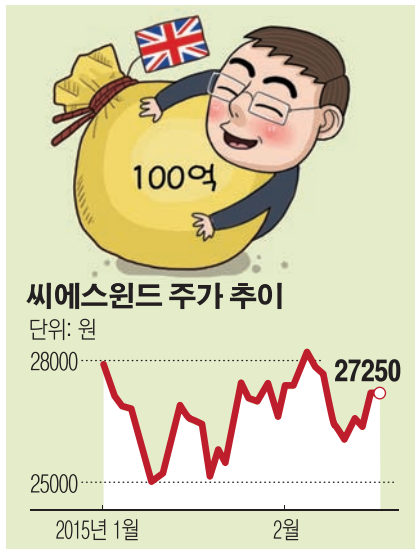
재개발 없이 그대로 앱에서 보고서를 본다!

하나의 소스로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스마트 OZ

OZ Report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태블릿PC에서 별도의 개발 없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전용 앱을 지원합니다.



“英 정부서 최대 100억 지원”...씨에스윈드 신바람



산업·혁신기술부 ‘지역성장기금’ 선정...3월 실시 북동 험버지역에 해상풍력타워 공장 설립 계획

씨에스윈드가 영국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영국 정부의 지역성장기금 수여 대상에 포함된 것. 지원 자금의 규모는 오는 7월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 씨에스윈드 측은 약 1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와 씨에스윈드에 따르면 최근 씨에스윈드 해외 자회사와 영국정부로부터 영국 산업·혁신기술부의 ‘지역성장

기금(Regional Growth Funding)’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지역성장기금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약 400개 기업이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그 중 50개 기업만이 선정됐다.

씨에스윈드는 지원 기업 중 유일한 해상 풍발전 업체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차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상태이며 오는 3월 중순 영국정부로부터 실사를 받을 예정이다. 실사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7월 중순 최종 지원 금액을 확정받게 된다. 씨에스윈드가 신청한 기금의 규모는 한화로 약 1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씨에스윈드 측은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영국 북동 잉글랜드 험버지역에 해상풍력 타워 제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씨에스윈드 측은 지난 달 중순 영국 해상풍력 타워 생산법인 신규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밝힌 예상투자금

액은 약 700억원으로 추진일정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세부내용은 △차세대 해상풍력 발전기인 6~8MW급 풍력발전기용 타워 생산을 위한 연산 약 7만5000톤 규모의 공장 건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 1위 업체인 지멘스윈드 파워와 지난해 6월에 체결한 해상풍력 타워 생산 및 납품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신규 공장 건설 등이다.

회사 측은 “영국정부로부터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지멘스와 맺은 업무협약을 통한 영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5월 중 본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재고 많지 않아”...셀트리온헬스, 올 매출 8000억 전망

판매허가 안한 가계약이 대부분 매출로 인식 안돼 재고자산으로 셀트리온과의 매출공백 메워질 것

“330억원(2012년) → 1450억(2013년) → 3900억원(2014년 추정) → 8000억원(2015년 추정)”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3~4년전에 200억~300억원대의 매출이 올해 수천억원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에서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소규모 IR행사를 열고 회사 현황 및 경쟁력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판매거래 및 계약구조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시장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걸까.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개발·생산한 바이오의약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다. 하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매출액이 매입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고, 재고자산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이유로 시장의 의구심을 받아왔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관계사 셀트리온이 생산한 모든 물량을 사주고 있지만, 정작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물건들을 팔지도 못하고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매출도 허수가 되는 셈이다. 실제로 2013년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는 9300억원인데 비해 매출은 1450억원에 불과하다. 2012년에는 매출이 330억원, 재고는 무려 6700억원이었다.

이에 대한 회사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렇다. 2013년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는 9300억원이었지만, 이 중 가계약분이 7800억원에 달했다. 가계약을 맺고도 매출로 인식되지 못할 까닭은 판매허가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허가이전인 시험생산(validation batch) 제품을 판매하면서 곧바로 매출로 잡았다. 이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해외 파트너사에 대한 판매로 인해 대금을 수령했어도 계약조건(허가)에 따라 매출을 미인식(선수금 처리)했다.

이후 계약 조건 실현에 따라 매출채권의 회수 또는 매출 인식(선수금 차감) 회계 처리를 하기로 한 것. 결국 판매 허가 이후에는 이미 판매한 부분 및 신규 주문 거래에 대해 곧바로 매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셀트리온 매출에는 잡혔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매출로 잡지 않았던 부분에서 생긴 공백이 모두 메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송영록 기자 syr@

넥스트칩, AHD 시리즈 성공에 2년 만에 흑자

4분기 순익 13억8000만원

넥스트칩은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27억9000만원, 영업이익 13억5000만원, 순이익 13억8000만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액으로는 201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2012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까지의 부진으로 인해 2014

년 누계 실적으로는 매출액 358억7000만원, 영업이익 27억원, 순손실 19억1000만원을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전년도 영업이익 119억4000만원 및 순손실 186억1000만원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크게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회사 측은 지난 4분기의 실적 개선의 요인은 단연 신제품 AHD(Analog High Definition) 시리즈의 매출 증가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한 AHD 시리즈는 최고 수준의 화질을 장거리 전송이 가

능하게 하는 제품이다. 고객사 입장에서 원가절감 및 타사의 비슷한 제품 도입 시와 대비해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이 본격 발생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넥스트칩 관계자는 “HD급(720p)의 화질 전송이 가능한 AHD 1.0에 Full HD급(1080p)의 AHD2.0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가세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올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실적 개선은 충분히 기대할 만 하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SP 주간동향

CPU코어 상용화 기사에...에이디칩스 상승률 100%

지난 주 분기 유료회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스타프리미엄(http://www.etoday.co.kr/stockpremium)에는 종목동보기 14건, 공시돋보기 7건, 무머속살 1등 총 22건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 가운데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사는 지난 9일 작성된 ‘에이디칩스, IOT 핵심 떠오른 CPU...’ 삼성·LG 등 공급 후 상용화 중’이라는 기사다. 기사가 게재된 9일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스타프리미엄은 에이디칩스가 사물인터넷 핵심으로 떠오른 CPU코어 기술을 삼성전자, LG전자 등 다수의 기업에서 상용화 후 사용 중이라고 보도했다.

에이디칩스 관계자는 “30건 이상의 CPU코어 기술을 라이선스한 실적을 갖고 있다”며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LG전자 등 다수의 기업에서 에이디칩스의 CPU코어 기술

SP동향 종목돋보기 기사 리스트 (증가기준)			
기사명	당일 주가 등락률	주간 주가 등락률	
동성화인맥, 올해 매출·영업익 창시 이래 최대 전망	-0.93%	-4.63%	
하이벨, M&A 대상공...상장 최대 매출 경신	2.60%	4.46%	
캔들미디어,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부가편권 확보	-2.98%	-2.41%	
에이디칩스, IOT 핵심 떠오른 CPU...삼성·LG 등 공급 후 상용화 중	14.81%	100%	
엘케이트렌드, 올 들어 中 NBA 매칭 4개 오픈...연내 누적 100개 연다	-3.38%	-3.72%	
모베이스, 중국법인 영업정지...태국 자회사도 ‘불안’?	5.47%	11.46%	
올트론텍, 삼성전자 광학시트모듈 초박형 블루레이 독점 공급	0.00%	-9.05%	
인포리퀘어 자회사 셀비스, 올 상반기 중 모바일게임 2종 선보인다	0.55%	-4.47%	
포스코 ICT, 골치거리(?)자회사 올해 흑자전환 전망	1.20%	3.15%	
화신, 현대차 중국 4공장 동반 진출 확정...해미이성 증설	0.57%	0.43%	
비아트론, 아이폰 제조사 픽스콘서 구매의향서 받아...매출 증가 기대	12.17%	12.50%	
제이씨엔, 현대모비스 1차 벤더 인수...스마트카 시너지 UP	-1.48%	-1.62%	
고려아연 자회사, 런던금속거래소에 한국 최초 회원 가입	0.73%	-1.79%	

을 가져가 상용화해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호재에 힘입어 에이디칩스는 지난 한 주간 무려 100%의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12일 보도한 비아트론의 주가 역시

급등세를 보였다. 보도가 나간 당일 12% 넘게 급등했다. 비아트론은 아이폰 생산업체로 유명한 대만 파스콘으로부터 구매의향서(LOI)를 접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선영 기자 moon@

공시 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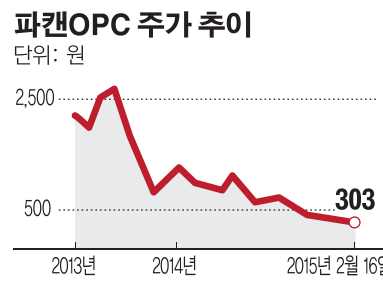
농수산식품수출 사업 확대 파켄OPC, 적자탈출 노린다

中 저가공세 프린터 부품업 고전 관련업체 대표 사외이사 선임도

대원그룹 계열사이자 프린터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파켄OPC가 농수산식품수출관련 사업에 뛰어들다. 신 사업 관련 업체의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관련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켄OPC는 임시주총결과 △파일 및 채소유통및판매업 △농수산식품수출업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여기에 더플러스어소시에이츠 대표이사인 안은철씨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임기는 2015년 2월13일부터 2018년 2월12일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대원그룹 파켄OPC는 컴퓨터 프린트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이며, 소재지는 충북 청원군이다.



금 의존도가 높아 이자비용 부담이 있어 당분간 적자 탈피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파켄OPC는 신 사업에 진출하며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사외이사로 선임한 안은철씨와의 시너지가 가장 주목된다. 안 씨는 더플러스 어소시에이츠 대표이사로 이 회사는 홈쇼핑, 소셜네트워크, 오픈마켓, 대형마트 수출 특판등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다. 더플러스 어소시에이츠가 가진 유통망이 신 사업 초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한 신 사업 진출이 아니라서 분석도 존재한다. M&A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는 안 씨를 영입하며 향후 파켄OPC의 M&A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김진주 에이티테크놀러지 대표 자사주 10만주 취득한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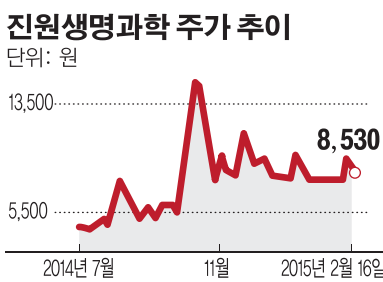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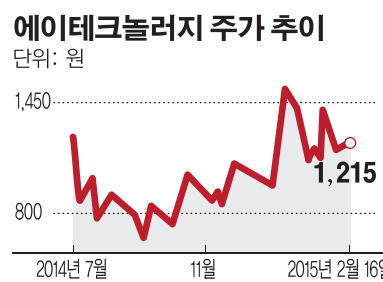
경영권 안정위해 지분율 늘려

에이티테크놀러지는 김진주 대표이사가 장내매수를 통해 자사주 10만주를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변동 후 김 대표의 지분율은 8.7%다.

김 대표의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부터 회사 경영진들은 유상증자 참여와 지속적인 지분 취득을 통해 경영정상화 및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이고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지분율을 종전 17%에서 현재 29%까지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에이티테크놀러지는 지난해 12월말 글로벌 반도체 부품 및 반도체 장비 종합 인터페이스 업체인 테스트피아와 합병을 완료했다. 회사 측은 합병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진원생명과학

유럽 기업과 파트너십

에볼라 백신 등 대량생산 대비

진원생명과학은 에볼라 DNA백신 등 플라스미드 기반 바이오 의약품의 상업화에 따른 대량생산에 대비하여 유럽에 위치한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에 의거해 비공개된 해당 기업은 상업 생산에 필요한 대규모 생물발효기(Fermentor)와 접단 생산공정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미식품의약품(FDA)과 유럽의약품(EMA)으로부터 플라스미드 DNA, 재조합 단백질 등 여러 바이오 제품의 임상용 의약품 GMP 대량생산 가능시설로 승인 받았다.

진원생명과학은 이번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위탁대행(CMO)생산시설인 VGXI도 플라스미드 DNA 생산기술을 제공하고 해당 기술 이용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술 이전이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진원생명과학 박영근 대표이사는 “당사는 금번 계약을 통해 기술 제공에 따른 로열티 수입은 물론, VGXI의 대량생산시설 확충 전에 위험 부담 없이 플라스미드 기반 바이오 의약품의 상업적 생산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캐스텍코리아

베트남 150억 증설투자

캐스텍코리아가 베트남 지역에 6만 평방미터 규모(약 1만8000평)의 해외 증설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향상에 나선다.

캐스텍코리아는 총 15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빈증성 미퓏(My ohuoc)공단에 2만톤 규모의 신규 라인을 증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캐스텍코리아의 생산규모는 기존 부산 사상공장에 3만톤, 진해 마전공장에 2만톤, 중국 진황도에 3만톤에서 더해져 총 10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캐스텍코리아는 자동차용 터보차저의 주요부품인 터빈하우징(Turbine Housing)과 센터하우징(Center Housing)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국내 점유율 1위, 세계 점유율 3위인 캐스텍코리아는 이번 증설로 생산능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송영록 기자 syr@

HYUNDAI MOTOR NEWS

www.hyundai.com



대한민국 대표세단 설 귀향 특별 지원 이벤트

- 아반떼 구매 고객 100만원 / 쏘나타 구매 고객 30만원 유류비 지원



금융 프로모션



- 「H-2030 서포터즈」 자동차 보험료 50% 캐시백
엑센트 / 아반떼 / i30 / 벨로스터 구매 고객 대상
자동차 보험료 50% 캐시백 (75년 이후 출생 고객, 최대 30만원 한도)
- 현대자동차 개인 리스 프로모션
아반떼 (월 20만원~) / 쏘나타 (월 40만원~)
그랜저 (월 50만원~) / 아슬란 (월 70만원~)

고객 참여 이벤트



- 7단 DCT Brand New Car 퀴즈 이벤트
퀴즈 정답자 861명 추첨, 상품권 / 주유권 등 혜택 제공
- 새해맞이 소원 성취 이벤트
2,015명 추첨, 종합 건강검진권 등 다양한 혜택 제공

2월 특별 구매 혜택



- 엑센트 구매 고객 30만원 유류비 지원
(경차 보유 고객 한도)
- 아슬란 구매 고객 100만원 유류비 지원
(현대차 보유 고객 한도)
- 쏘나타 하이브리드 정부 보조금 100만원 지원
(국내 생산 차종 중 유일)

* 본 광고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취소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hyundai.com) 및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